

창간 2주년 월간 가든인 5월호

May 2015

Gardenin

특집
기사

정원의 금빛물결로 만나는 매력의 황금빛 식물 10선



Gardenin Maintenance

Gardenin 5월 정원관리
정원사의 일기



Gardenin Plants

정원 '속' 보이네
음지식물 옥잠(호스타)



Gardenin Culture

Colour In The Garden - Pink
휴양정원문화도시 바덴바덴
Cotswolds 정원마을



Dodecatheon 너도엘레지



Gardenin Information

영국의 정원디자인학교 소개 / 도서정보안내
가든조아 5월 주말특강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모뉴먼트®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 등 난방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싹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작물 : 한국잔디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시문선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시 마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는 붙여주거나 보관하십시오. © 잔디사용기준을 잘 지켜 두수농산물을 생산하십시오.



Chelone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4 1년생 덩굴식물 스위트피 정원 만들기**
 1년생 덩굴식물의 정원디자인 활용도와 특징
- 7 Gardenin 정원사의 5월 정원관리**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 심고 씨앗도 파종하는 정원관리와 초여름의 작업일정
- 10 정원사의 일기 / 김시용**
 5월 일기/ 소만의 절기에 심고 가꾸는 정원일기
- 14 커뮤니티 가든, 지역 공동체 정원**
 외국과 한국의 커뮤니티 가든 역사 & 유래를 정리
- 17 마음의 정원 / 우정아**
 경기도 일죽의 정원사 이상민 부부의 "마음의 정원"
- 20 토종식물 / 안완식대표**
 생강의 역사와 민간요법 이용도, 효능 등을 상세히 그림과 설명
- 24 특집 / 가든인 Gardenin잡지 "창간 2주년" 축하의 글**

Gardenin Plants

- 28 정원 속 (Genus) 보이네**
 정원의 식물들 속/Genus를 배워가면 쉽게 식물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
- 32 Special Issue / 5월의 빛은 금빛**
 정원에 금빛 물결로 만나는 보석 같은 화려함의 매력에 빠지게 하는 식물들 무엇인지? 종류는 어느 것 인지?
- 38 음지의 카멜레온 옥잠화**
 정원의 필수품이고 음지에서도 늘 건강하며 아름다운 식물 소재인 옥잠화 종류만으로도 정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데, 관리도 쉽고 번식도 용이하고 ...
- 42 미래의 정원사 어린이 "서퍽"의 정원나들이**
 어린이 "baby"와 가까운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식물들의 소개와 어린이의 키처럼 쑥쑥 자라는 정원식물들의 이야기.

- 44 청계광장의 혼식정원 식재**
 공공정원의 식재 형태가 다양화되며 소비자는 어느 곳에서든 혼합식재의 다양화를 즐길 수 있다.
- 50 이명호의 야생화**
 풀과 나무의 중간형인 애기풀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다
- 52 다육식물은 왜 유행되고 있는.**

Gardenin Culture

- 54 김홍렬의 한국전통 정원이야기**
 전통 별서정원해석과 현대정원에서의 활용법을 비교, 접목하는 이야기
- 58 핑크빛의 정원 / 오도**
 정원의 분홍빛 조화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식재를 할까요
- 62 휴양 정원문화도시 바덴바덴 / 손관화 교수**
 독일 휴양도시와 정원문화의 정보를 한국의 정원문화에서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 65 정원의 질감 연재 2 /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정원은 식물이 있는 곳이지만 꽃, 나무 외에도 만나볼 많은 재료가 있다.
- 68 정원의 색깔을 찾아나선 여행 / 정수조경 대표**
 정원의 색채는 늘 유행처럼 변화하는데 색의 소재를 찾는 디자이너의 유럽 여행길 색채를 렌즈에 담다
- 72 정원의 소품들 /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정원의 디자인 요소에는 식물 외에도 정원의 요소가 필수로 선정되어야 디자인이 완성
- 75 재할용정원의 Craft / 우정아 가든코디네이터**

Gardenin Information

- 78 일글랜드 중서부 시골마을 연재 3.**
 Cotwolds 마을의 공동체적 정원마을 형성은 영국의 대표적 세계관광지 손꼽히는 데...
- 80 영국정원디자인 학교의 소개**
- 81 5월의 정원도서 소개**

Gardenin
 Gardenin 월간 5월호

'스위트피(Sweetpea) 정원'

푸른 초록으로 물들은 여름 정원속에 중앙에 높은 지지대를 만들어 정원의 디자인과 향을 전달하여 매력을 주는 스위트피 덩굴식물



키친가든에 심어야 할까? 정원에 꽃을 보기 위해 심어야 할까?

콩 열매도 얻고, 꽃도 아름다우며, 향기도 짙은 스위트피. 새로운 종자를 소개받고 고민하며 심는 경우가 많다. 이제 가든인 독자에게 2015년 스위트피의 씨앗은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과 식용으로 이용하며, 정원에 향도 진동하는 스위트피의 매력을 준다. 도시농업 정원에서는 종자 파종과 가꾸어 콩의 열매도 수확하며, 성장하는 동안 아름다운 꽃과 향기도 주위에 풍기어 정원의 꽃향기 이상으로 즐거움도 선사하는 1년생 덩굴이지만 가치가 높은 식재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원의 디자인을 일년생 종자로 이용하여 품위있는 정원용 디자인 식재로 해외에서는 사랑받는 식물이다. 씨앗 선정시 일년생의 상품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일년생 식재 용도에 대하여 2015년 봄 우리꽃 연구소에서는 네덜란드 직수입으로 '가든앤씨앗' 상품 종자를 준비하였으나 소비자들은 일년생이라고 하면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다년생 숙근초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그리 길지가 않다. 정원에는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의 식물이 조화를 갖추어야 아름다운 정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5월을 맞으며 채소 정원이나 정원에서 누구든 성공적으로 쉽게 키울 수 있는 스위트피 Sweetpea의 특징을 소개한다.



우리꽃 연구소 종자100선 중 '스위트피'



스위트피의 파종과 덩굴식물의 성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나뭇가지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준비해 둔다 (성장 전)



덩굴식물은 행잉 바스켓에 파종을 하여 장식용으로 걸어두면 정원의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보는 새로운 디자인의 정원용식재



파종후 덩굴식물의 성장과 꽃의 개화로 채소정원과 정원사이의 가로막으로 정원디자인에서 이용도가 높으며, 향과 꽃이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봄에 파종의 필수품종이다. 꽃의 색상도 다양하고 정원의 어느 꽃보다 향이 높고 나뭇가지도 모으는 식물이다. (성장 후 개화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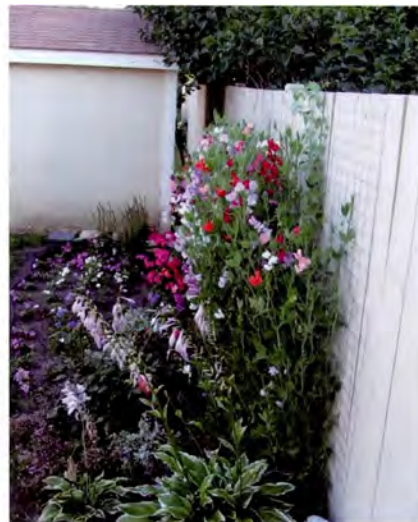




정원속 일년생 덩굴 식물은 키진 가든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지대의 모양에 따라 정원에서는 focal 포인트가 되는 아름다운 식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원에서는 설치물의 용도에 따라 청미처럼 고급 정원의 디자인용도로도 사용하여 넓은 용도로 스위트피의 다양한 색상을 이용할 수 있다.



Gardenin 정원사의

초 여름이 시작되는 정원관리

추식 구근이 사라지며 다년초 화단이 최고의 높이로 자라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파종과 옮겨심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무른 나무의 삼수를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의 따뜻한 기온에서 잔디가 잘 자라기 때문에 멋진 모양으로 잔디 깎기를 해주어야 한다



채소모종 심기



오이



가지



호박



배추



로즈



꽃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봄			
		3	4	5	
01	관목 & 덩굴정리				
02	가지치기/ 전정작업				
03	퇴비주기				
04	망둑집기				
05	춘·추식구근 심고 나누기				
06	농사짓기(채소과일종자배치)				
07	화단관리				
08	원예 업무				
09	정원 도구 수리·유지·보수				
10	점불이끼				
11	조경 경관 디자인				
12	춘식·추식 씨앗 파종				
13	동철기 정원 관리준비				
14	물 배기(잡초제거)				
15	병충해 관리				
16	식물명 표찰 작업				
17	식재 심기 작업(춘추식)				
18	잔디작업준비(햇살)				
19	토양 분석 및 관리				
20	나무 버팀대 설치 및 점검				
21	관수 공급				
22	충활 관리 감독 (정원관리피드백)				
23	작업전 후 사전정리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이달의 정원 관리 작업 리스트

- 부드러운 식물을 잘 보호하며 줄기가 자리 잡도록 지지대 사용도 필요하다
- 채소 모종 심기와 감자 복주기를 한다.
- 이번 달 말에는 여름용 배당 식물의 옮겨심기를 한다.
- 빗물을 모으고 재활용 물의 관계수로를 점검한다.
- 채소밭과 꽃밭은 관이질을 주기적으로 해서 잡초를 제거한다.
-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실의 문과 환기구를 열어준다.
- 매주 잔디의 잡초관리와 잔디 깎아준다.
- 올타리식물의 가지치기를 하며 가지치기하기 전에 새의 동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선화나 다른 봄에 개화하는 구근의 가지가 무성한 덩불을 뜯거나 나누기를 한다.
- 벌레나 곤충의 피해를 조심한다

정원가꾸기 업무과정



가지치기와 뿌리나누기

호스타(*Hosta*)등의 뿌리 번식식물은 완전히 성장을 하면 분할을 해주며, 침범형 식물(spreading and trailing plants)은 지저분하고 고르지 못하므로, 개화 후 가지치기를 해주어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개화를 유도한다. 꽃이 핀 후 수선화의 뿌리 분할을 해주거나 튤립과 수선화의 시든 꽃을 잘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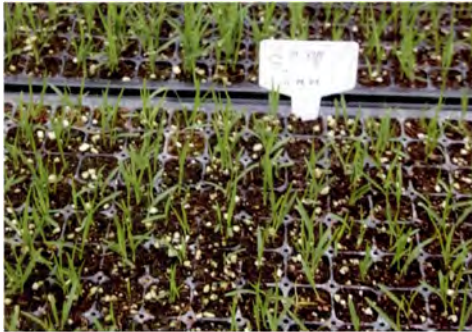
증식

부드러운 다년생식물인 가우라(*Gaura*), 펠라르고늄(*Pelargonium*), 후시아(*Fuchsia*) 등의 무른 가지를 삽수로 번식을 할 수 있고, 다년생 초본의 잎부분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면, 기본 줄기의 삽수를 통해서 증식을 할 수 있다.



풍점초

파종후 모종 이동하여 심기



수크령



배버나

일반관리

꽃이 진 봄 개화 구근에 액상 비료를 주면, 다음해에 좋은 개화를 유도 할 수 있으며, 봄 개화 구근이 잎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기다립니다. 초본식물이나 펜지 같이 많은 꽃을 개화하는 식물의 자리에 너무 높게 자라기전에 지지대를 준비한다. 씨앗이나 삽수로 부터 자라난 식물을 외부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지내게 하여 건강하게 적응 할 수 있게 한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외부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10~1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적응 훈련을 시켜준다. 씨앗으로부터 자라난 내한성 일년생 식물과 무 같은 채소의 솟아주기를 하며, 2주 간격으로 2~3개의 단계(대/중/소)를 설정 해서 최종 10~20cm 간격이 되게 한다. 실내에서 자란 묘목이 스스로 피해없이 자랄 수 있는 크기로 성장을 했으면 이식을 한다. 경계구역을 호미질 해서 일년생과 다년생 잡초를 제거해서 스스로 씨앗을 피트리는 것을 방지하고, 스위트 피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하면 좋은 장식이 될 수 있다. 국화(*Chrysanthemum*)와 해바라기(*Helianthus*)의 일찍 나온 순을 잘라내면 나중에 더욱 무성하게 될 수 있다. 가늘고 길게 늘어진 모습을 좋아한다면, 싹을 조금만 따내서 좋은 개화를 유도

할 수 있다. 2~4주 간격으로 화분에 있는 식물에게 액상 비료를 주고, 덩이줄기 식물이나 벽걸이용 식물 그리고 고산식물 등에 물을 잘 주도록 해야 하며, 빗물이나 재활용수를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한다. 화분에 심어진 식물의 뿌리가 튀어나오면 뽑아서 제거해 주고 다른 이유로 뿌리가 튀어나온 게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수목과 관목

가지치기와 적응훈련

펜스테몬(*Penstemon*), 가우라(*Gaura*) 층꽃나무(*Caryopteris*), 후시아(*Fuchsia*)등과 같은 부드러운 식물의 가지치기를 하며, 상록성 울타리 식물도 다듬어준다. 특히 장식용 그라스는 잔재물(특히 그라스류)을 퇴비와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장식용 그라스들은 봄에 잘라주어 푸른 싹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계절이나 비오기 전날 퇴비를 듬뿍 뿌려주면 건강한 잎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스티제라 영양제

봄의 개화 활착 & 성장 균형잡힌 식물 영양분
경엽처리, 관주처리 가능

정원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영양분.
봄의 식물에게 필수영양제!

성분

스티제라는 동물성 클라겐을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한, 유리 아미노산과 크고 작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유기질 복합체이다.
(유리)아미노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 질소분, 암모니아탄 질소, 질소, 유기탄소, 회분, 수분

기능

저온, 물 부족 또는 과염류에 의한 스트레스부터 안정화 저항 조직의 생성으로 세포벽 강화, 화분 수정을 향상.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의 생장 촉진. 질소를 보관하는 천연 저수지와 같은 역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

장점

작물에 쉽게 흡수되는 영양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적은 에너지로 소모
아미노산을 공급해 줌으로 염록소의 합성이 용이
영양생장을 촉진, 발근 촉진시키는 옥신산을 생성
강력하고 조화롭게 뿌리와 줄기, 잎을 발달

syngenta 신원 코오리(주)

모뉴먼트

특징과 이점

-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이다.
- 락 등 문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잡초 발생후 뿐만아니라 발아 전 사용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다. (모소등지)
-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 약효 지속시간이 길어서 오랜 기간 지속력이 있다.
- 한국전지에 사용해도 잔디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방제 효과가 뛰어난 사전비교

'발아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효과와 긴 약효시간을 유지하여 추석이 되는 가을까지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4월(음력)령 [농가월령가]

조선 초 공해군 때의 고상인(高尚簡) 또는 조서 후기 현충 때의 정학유(丁學游)

사월이라 맹하¹⁾되니 입하 소만²⁾ 절기로다.
비온 끝에 별이 나니 일기도 청화³⁾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배꽃새 자주 울고,
보리이삭 패어나니 피꼬리 소리 난다.
농사도 한창이요, 잠공⁴⁾도 방장⁵⁾이라.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대사람을 녹음에 달았도다.
면화를 많이 가소 방적⁶⁾의 근본이니,
수수 동부 녹두 함께 부록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무논을 써래질하여 이른모 내이보자.
농랑⁷⁾이 부죽하니 환자⁸⁾타서 보태리라.
한잔 잡고 이는 누에 하루도 열두 밤을,
밤낮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이리라.
뽕따는 아이들아 뒷지루 보아하여,
고목은 가지 꺾고 햇빛은 제쳐 따소.
쥘래꽃 만발하니 적은 가뭄 없음쓰나.

이 때를 승시⁹⁾하여 내 할일 생각하소.
도랑 쳐서 수도¹⁰⁾ 내고 우루척¹¹⁾ 개와¹²⁾하여,
음우¹³⁾를 방비하면 땃근심 더나니,
봄날이¹⁴⁾ 풀 무명을 이때에 마전¹⁵⁾하고,
삼베 모시 형세대로 여름옷 지어두소.
벌통에 새끼 나니 새 통에 받으리라.
천만 벌이 일신으로 봉왕¹⁶⁾을 호위하니,
꿀 먹기도 하려니와 군신분의¹⁷⁾ 깨닫도다.
파일¹⁸⁾에 현등¹⁹⁾함은 산촌에 불건²⁰⁾하니,
느티떡 콩 전 떡은 제때의 별미로다.
해 내에 풀이 주니 천렵²¹⁾을 하여보자.
알 길고 잔풍²²⁾하니 오늘 놀이 할 되겠다.
벽계주²³⁾ 백사정²⁴⁾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²⁵⁾ 늦은 꽃엔 봄빛이 남았구나.
축구²⁶⁾를 둘러치고 은관옥척²⁷⁾ 후려내어,
반석에 노구²⁸⁾ 걸고 솟구쳐 끊어내니,
팔진미²⁹⁾ 오후청³⁰⁾을 이 맛과 바꿀소나.

- 1) 맹하(孟夏): 초여름, 음력 4월을 일컫는 말
- 2) 입하소만(立夏小滿): 입하는 24절기의 일곱째로 양력 5월6일경. 소만은 24절기의 여덟째로 양력 5월21일경
- 3) 청화(淸和): 맑고 화창함
- 4) 잠공(蠶公): 누에농사
- 5) 방장(方丈): 바아초로 한창인 것
- 6) 방적(紡績): 동서쪽의 실을 두 가닥하여 실을 만드는 일
- 7) 농랑(農耨): 농사를 짓는 동안 먹을 양식
- 8) 환자(患子): 환자(患兒) 나라에서 바둑에 두었다가 국서를 충공기(忠公記)에 백성들에게 주어 주었다
- 9) 승시(乘時): 때를 타는 것
- 10) 수도(水滸): 물이 흐르는 곳
- 11) 우루척(鵲橋): 비가 내는 곳
- 12) 개와(開蛙): 기와로 지붕을 이는 것. 가사 원문에서 '改瓦'는 지붕의 기와를 다시 손보아 만드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꽃'의 오인인 듯함.
- 13) 음우(陰雨): 오래 내리는 굵은 비, 또는, 음산하게 오는 비
- 14) 봄날이: 봄에 전편 무렵
- 15) 마전(買田): 생필품을 살거나 뽕에서 바래는 일
- 16) 봉왕(奉王): 여왕
- 17) 군신분의(君臣分): 군주와 신하 사이에 있어야 할 적당과 위안
- 18) 파일(八月): 초파일, 육불일(浴佛日), 석가탄생일
- 19) 현등(懸燈): 등불을 높이 매다는 일
- 20) 불건(不健): 건조하지 아니함
- 21) 천렵(川獵):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
- 22) 잔풍(殘風): 잔잔한 바람
- 23) 벽계주(壁井頭): 무르고 얇은 사발
- 24) 백사정(白沙汀): 강가 바닷가의 흰 모래가 깔려 있는 곳
- 25) 수단화(水芹花): 연꽃
- 26) 축구(蹴鞠): 눈물 베풀 때 쓰인 그늘
- 27) 은관옥척(銀冠玉尺): 물고기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또는,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28) 반석(磐石): 노구: 낙엽이와, 넓고 편평한 큰 돌
- 29) 팔진미(八珍米): 노구술의 준말, 보석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자유로이 옮겨 가며 따로 걸고 사용함
- 30) 오후청(五侯相): 중국 한나라 성제(成帝) 때에 누오(奴才)가 성제의 왕실친인 오후(五侯)가 보내온 갖가지 고기와 생선을 맛있게 먹었다는 고사로 연유해서, 매우 맛있는 진미(珍味)를 이름

출처: <http://www.gassa.co.kr/>

5월은 입하(立夏)와 소만(小滿)이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입하는 (立夏)와 夏(여름)로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때로 농사가 바빠지며, 해충·잡초 제거작업 등의 일이 많아집니다. 시기상으로는 입춘으로부터 일곱째 절기로 음력 4월의 절기로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어, 양력 5월 5~6일경에 해당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45°에

관상정원(Ornamental Garden)

5월 초가 되면 단풍나무는 잎과 같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초록색의 잎 바탕에 빨간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층층나무는 5월 초에는 잎이 나오고 잎색이 밝은 초록으로 연한 노랑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무의 수형이 가지가 층층으로 뾰고 거기에서 잎이 나기 때문에 단정한 느낌이 들어 이 나무를 보면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5월 말로 가면 잎색은 짙어져 녹색으로 되고 여기에서 흰 꽃이 가지의 끝에 달려 나무 전체를 감싸 없듯합니다. 느티나무도 이때가 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느티나무는 오랫동안 사는 나무이고 수형이 둥그런

이르렀을 때입니다.

소만은 小(작을 소)와 滿(가득할 만)으로 작물이 자라서 약간의 곡식이 여우는 때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갑니다. 시기상으로는 입춘으로부터 여덟째 절기로 음력 4월의 절기로 입하와 망종사이에 들어, 양력 5월 21일 무렵이 됩니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60°일 때입니다.

형태로 넓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마을에 정자나무로 많이 쓰였고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팔배나무는 열매의 크기가 팔을 닮고 꽃이 배꽃과 비슷한 데서 나무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느티나무처럼 크지는 않지만 자랄 때 아래에 있는 가지를 잘 전정해주면 느티나무처럼 넓은 그늘 아래에서 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꽃이 흰색으로 나무 전체에 만발하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독립되게 심어 볼 수 있고 정원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 배경이 되는 식물로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로도 좋은 식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팔배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난티얌개암나무는 이미 꽃

이 지고 잎이 많이 나와 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을에 밤이 익기 전에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꽃이 화려하지 않지만 봄부터 늦여름까지 녹색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이 나무의 쓰임새는 가지가 부드럽고 조밀하고 잘 부러지지 않아 잘라서 다른 키가 커거나 덩굴성으로 자라는 초화류를 지지해주는데 쓸 수 있습니다. 신나무는 잎은 신록의 색깔을 보이고 가지 끝에 흰색의 드러나지 않는 꽃이 핀다. 이름으로는 이 나무가 단풍나무과의 나무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지만 꽃이 지면 단풍나무과의 특징인 선풍기 날개 같은 열매를 볼 수 있고 이 열매는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색으로 바뀌어 마치 가을에 꽃이 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산과 붙어있는 도로를 따라 걷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저 꽃은 무슨 꽃일까?" 하며 이 신나무로 향하게 됩니다. 신나무는 개울가나 계곡의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강나무는 잎에서 생강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잎은 둥그런 모양,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모양, 세 개로 갈라져 갈라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갈 때 밥이 쉬지 않게 생강나무의 잎에 감싸서 갔다고 합니다. 진달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월 중순부터 5월초에 분홍색의 꽃이 피어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토양에서 잘 자라고 진달래꽃 시에서는 우리 민족의 설움과 한을 잘 나타내고 있죠. 진달래의 꽃은 화전을 부쳐 먹을 때

장식하였습니다. 꽃으로 장식하여 호사스런 것 같지만 이 시기는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마도 배고픔을 양으로 채울 수는 없기에 눈이라도 마음껏 졸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시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 5월말이나 6월초가 되면 먹을 수 있는 봉나무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봉나무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잎은 누에를 길러 옷감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열매는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한 나무에서 많이 달립니다. 열매에는 철분이 많아 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잎에도 철분에 많은 것으로 밝혀져 어린잎을 따서 데쳐 먹기도 하고 장아찌로 담가 먹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열매를 따서 열매와 설탕을 1대 1로 해서 불에 졸여 쨌으로 먹습니다. 봉나무의 열매를 오디라고 부르고 봉나무라는 이름은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가 봉~봉~ 나와서 나무의 이름이 붙여졌 습니다. 정원의 분위기를 밝게 하기위해서 새잎이 날 때 황금조팝나무와 같이 잎에 노랑색이 나는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황금조팝나무는 밝은 노랑색의 잎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들어간면 밝은 색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분홍색의 꽃이 핀다. 나무의 형태가 단정하여 정원에 심으면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좋은 식물입니다. 덩굴식물로 이 시기에 꽃이 피는 종류로는 등, 으름, 질레 등이 있고 초화류에는 지면매량아꽃, 벼룩나물, 은방울꽃, 톨립, 홀아비꽃대 등이 있습니다.

키 큰나무(교목)



느티나무(Zelkova serrata)



단풍나무(Acer palmatum)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꽃(Cornus controversa)



팔배나무(Sorbus alnifolia)

키작은나무(관목)

난티알개암나무(*Corylus heterophylla*)느티나무(*Zelkova serrata*)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신나무(*Acer tataricum* subsp. *ginnala*)신나무(*Acer tataricum* subsp. *ginnala*)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덩굴성식물(만경목)

등(*Wisteria floribunda*)은방울꽃(*Convallaria keiskei*)벼룩나물(*Stellaria alsine* var. *undulata*)으뜸덩굴(*Akebia quinata*)튤립(*Tulipa* cvs.)홀아비꽃대(*Chloranthus japonicus*)

초본식물

텃밭정원(Vegetable Garden)

5월이 서리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실내나 온실(비닐하우스)에 파종해서 자란 어린묘를 이랑에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물, 줄자, 삼갱이(선호미), 모종삽 또는 호미, 물뿌리개, 어린묘, 표찰, 연필이 필요합니다.

본밭에 아주심기



정식1.
본밭 아주심기에 필요한 모종과 물뿌리개 등을 준비한다.



정식2.
채소마다 아주심기에 적당한 간격이 있다. 줄자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막대기나 대나무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아주심기 할 위치에 모종을 놓는다.



정식2-1.
종을 일단 들어낸 후, 그 자리에 모종삽을 이용해 구멍을 판다. 흙이 부드러운 경우는 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정식3.
구멍을 파낸 곳에 물을 충분히 준다.



정식4.
포트에서 모종을 빼낼 때는, 김지와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줄기가 오도록 한 후에 뒤집는다.



정식4-1.
뒤집은 후에는 화분의 아랫부분의 통근 곳을 살살 눌러 주는데, 그렇게 하면 포트에 달라붙었던 뿌리가 떨어지면서 포트에서 분리하기 쉬워진다.



정식5.
포트 아랫부분에 엉켜있는 뿌리들을 그대로 두면 식물의 자람이 좋지 않다.



정식6.
엉켜있는 뿌리들을 떼어내거나, 혹은 풀어 준다.



정식7.
미리 물을 주었던 구멍에 모종을 넣고 흙으로 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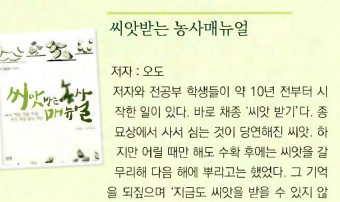


정식8.
심고 난 후에는 뿌리의 활착을 돕기 위해 양손으로 꼭- 눌러준다.



텃밭정원가이드북

저자 : 오도, 김시용
처음 해보는 텃밭정원
여럿이 함께 만드는 텃밭정원
원, 도심 어린이집 벽을 따라
만드는 텃밭정원, 길어디는
텃밭정원까지 텃밭정원을 어
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사진
과 함께 그 과정을 친절하게 만
내해 주고 있다.



씨앗받는 농사매뉴얼

저자 : 오도
자지와 전공부 학생들이 약 10년 전부터 시
작한 일이 있다. 바로 채종 '씨앗 받기'다. 종
묘상에서 사서 심는 것이 당연해진 씨앗. 하
지만 어릴 때만 해도 수확 후에는 씨앗을 갈
무래해 다음 해에 뿌리고는 했었다. 그 기억
을 되짚으며 지금도 씨앗을 받을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고, 직접 씨
앗을 받고 그것을 뿌려 거두기에 도전했다.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안재)



안재간편 마을정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간편입니다.

마을정원(Community Garden), 지역공동체 정원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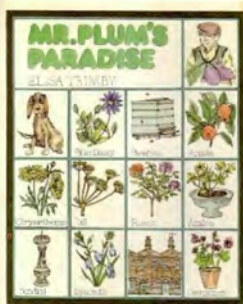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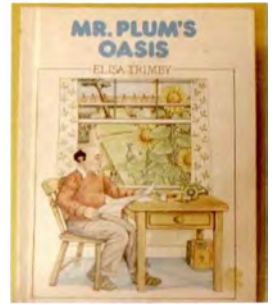
커뮤니티가든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을 정원' 혹은 '지역 공동체 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정원의 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원의 한 형태입니다. 커뮤니티가든이 생기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뮤니티 가든 40년의 역사, 영국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의 그림책에서 시작됩니다. 엘리스 트림비(Elisa Trimby)라는 작가가 1976년에 쓴 "MR. PLUM'S PARADISE"라는 한권의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플럼할아버지는 런던의 뒷골목의 아주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집의 정원은 몹시 황폐하고, 봄이 되어도 온기가 없이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플럼할아버지는 청년퇴직을 한 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지만,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언젠가는 공기가 좋은 시골로 내려가, 정원이 넓은 집에 살면서 해바라기를 정원 가득 피우게 할 거야'라는 꿈이



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플럼할아버지는 꿈속에서 '그런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란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 왔고, 플럼할아버지는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통장에 있던 돈을 꺼내서 원예용 도구와 꽃씨를 사서, 매일매일 정원일 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플럼할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을 머금은 정원 식물들은 멋지게 꽃을 피우고, 드디어 여름에는 정원가득 해바라기가 피어났습니다. 플럼할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꽃을 꺾어 집안에 꽂아두기도 하고, 교회에 가져가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밝고 활기차게 바뀌어 가는 플럼할아버지를 본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도에게도 정원 일을 가르쳐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고심한 끝에 혼자 보다는 둘이 일하는 게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정원은 점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정원을 보러오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정원은 모두에게 소개할 정도로 유명해지고, 그들의 정원은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이란 형태로 사후에는 영국 정부의 내셔널트러스트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커뮤니티 가든" 소개

커뮤니티 가든의 두 번째 사례는 1973년 미국의 뉴욕 매하튼의 한편에 있는 'Liz Christy Community Garden'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원은 녹음으로 어우러지고,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한 장미정원이 있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텃밭으로 아름답지만, 당시에는 잡동사니가 쌓인 거대한 쓰레기 터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 쓰레기 터미에서 노닐고 있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목격한 이웃 마을의 리즈 크리스티(Liz Christy)씨는 '여러분들의 손을 빌려 주세요'하며 친구들에게 호소하며 주변을 청소하고 가꾸어, 결국에는 쓰레기장을 오아시스로 바꾸게 됩니다. 리즈씨 덕분에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하게 되고, 뉴욕시 전체가 지역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 결국, 커뮤니티 가든 만들기 운동은 전미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미국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Liz Christy Community Garden Great Pond

커뮤니티 가든은 이 두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혼자서 아닌 이웃들이고, 개인집 정원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면서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는 사실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혹은 지역에서, 같이 땅을 흘리며 일하고, 생명을 가꾸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든"을 진화시킨 한국 두레마을정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 이전에는 각 마을마다 '두레'가 있어서, 같이 농사를 짓고, 마을길을 가꾸는 등 마을의 힘든 일을 같이 하면서 이웃 간에 우정과 사랑을 쌓아 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사상이나 지향 점은 커뮤니티 가든과 두레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커뮤니티' 가든을 시도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커뮤니티 가든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녹색의 공간이고, 지역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배움의 장소이며, 마을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풀뿌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재간편 마을정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간편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コミュニティーガーデンをつくろう,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자」라는 책에서 나온 커뮤니티 가든의 뜻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연령이나 성별, 지식이나 경험 등에는 관계없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마을 만들기의 꿈을 갖고, 씨를 뿌리고, 키우고,
가꾸는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마을 안에 비어있는 땅이나 손이 닿지 않아 방치된 장소,
모두가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서로 도와가면서 녹색의 오아시스로 변화시켜 가는,
방법의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흙의 온기, 바람의 향기, 꽃봉오리의 부풀어 오름,
촉촉하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계절이 바뀌고 변해가는 것을,
살짝 알려주며 속삭이는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만남의 기쁨을 키워가고, 지켜 나가는 즐거움,
결실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정원,
그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적의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생명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는 장소이고,
작은 것, 약한 것들에 대한 위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는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몸과 머리를 적절하게 움직여,
땀을 흥벅 흘리게 하는 정원,
식육증진, 쾌적한 수면, 심신을 상쾌하게 해,
튼튼하게 단련시켜 주는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한중의 흙이나 한 송이의 꽃으로부터,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알고,
지구환경에 대한 생각을 두루하고, 생태적인 생활이나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높여주는 정원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란,
가까운 자연과 맞닿으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람과 커뮤니티,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키우는 정원,
때문에, 커뮤니티 가든이란,
모두가 마을 만들기를 배워 나가는 녹색의 학교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정원사의 정성으로 어울어진 "마음의 정원", 경기도 일죽

마을내 정원, 기부 문화 실천과 기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충실히 긴 시간을 바쁘게 달리다가 맞이하는 제 2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의 땅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다. 자연을 찾아 생각하던 중 어머니의 품이 가득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자리한 이상민 부부의 정원은 5,000여 평의 임야에 500여 평에 터를 잡고 정원을 조성하였고, 주변 환경은 자연의 숲을 품어 안은 듯 고요하게 둘러싸여 심신이 맑아지는 듯한 풍경이 자리잡고 있다.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6년이라는 준비 기간과 2012년부터 2년 간 서울과 인성을 왕래하며 본격적으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입주하여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기본 출제 국가에 기부한 600평을 정부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나서 조성의 어려움이 덜어졌다고 한다. 정원은 소나무 위주로 식재되어 있으며, 자연석과 수형의 자연스러운 소나무로 동양의 미를, 사이사이로 서양 정원의 요소를 적절하게 가미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소나무와 함께 보리수, 벚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화살나무, 흰말채, 노랑말채, 장미, 찔레, 황금촉매, 노향나무, 남천, 말발도리 등과 튼튼, 수선화, 무스카리, 돌단풍, 할미꽃, 복수초, 기린초, 국화 등의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사 이상민 부부





어머님의 마음을 품은 정원 뒤에는
암석가든과 수경정원으로 많은 볼거리가 흐르고 있다.



어린이절 추억과 역사적 의미를 품은 "정원의 터"

이 곳에 터를 잡게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부터 어머니께서 성당에 새벽 미사를 다니시던 모습이 늘 아련했는데, 그 길이 동무들과 뛰어 놀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라 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갑사 치마 저고리를 입은 모자상의 정원 조형물에서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과 갑사의 질감을 통해서 표현한 것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정원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망이산은 고려 거란족 3.4차 침입 시 대 격전지로, 망이산과 죽주산성 사이에 이진대(오랑캐의 진지)가 있었는데, 이곳은 오랑캐의 동정을 망이산에서 살펴 봉화로 죽주산성의 아군에게 알려 주어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망이산 길은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 이 합쳐지는 곳, 삼통대로(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중 요시 여겨지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원주민들은 망이산을 신성시 했고, 이러한 신성한 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마음의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정원사의 기쁨이 넘치는 정원

수목원이나 유명한 정원을 방문하면서 늘 정원사가 동행하며 작업하는 현상은 외국의 정원에서는 자주 마주치는 흔한 장면이다. 이곳 일족 정원의 관리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부부 정원사의 알상은 아침에 산책 하면서 조금, 강아지와 놀아주면서 조금, 일이 있으면 나갔다 오면서 조금, 이렇게 나눠 가면서 한다고 했다. 일을 한꺼번에 할 경우 질리고, 힘이 들어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귀촌의 경우 즐거움이 힘겨움이 되어 도시로 돌아오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정원 가꾸기는 바람직한 것 같다. 부부 정원사는 주말이면 손자가족과 함께 모여 정원을 가꾸며 여가를 즐긴다. 늘 부모님을 정원에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정원에는 잡초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며, 이 정성만큼은 이미 전문가 이상의 정원이다. 정원에 몰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사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에서 "무언의 힐링"과 같은 자연의 말없는 교훈은 삶의 생명력으로 이끌어 간다. 즐기는 정원이기에 전문가적 지식도 없지만, 그 이상의 정성이 곳곳마다 배어있어 정원을 산책하며 방문하는 모두에게 행복과 미소가 나오는 곳이다. 지난 3년간 가지치기, 다듬고, 식재하는 일까지 손수하며 부부의 정성이 담긴 "마음의 정원"을 위해 봄마다 새로운 식재도 사전에 준비하며, 정원의 디자인에도 부부의 의견이 융합하여 둘 주변에도 식재 하나로 새로움을 연출하는 기법도 수준급인 정원사 부부이다. 주변의 자연환경 역시 깔끔히 관리한다. 병해충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비료를 흙과 섞어서 사용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병해충 걱정이 없었지만, 미래를 위한 친환경 방제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과 함께 만드는 정원

사람을 유난히 좋아하는 주인장은 어느 곳에서든 만남을 제안하고 이 끌어가는 존재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그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는 주인장의 정원이 되었고, 지인들의 재능 기부로 정원의 틀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정원의 설계, 나무의 식재, 초화류 식재 등 지인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정원은 전문가의 손이 닿지 않아도 기초가 잘 다져진 정원이다. 특히 경기조경가든대학에서 만난 이들의 실습의 장소로도 활용해 늘 만족도는 높았다고 한다. 또 정원에서 필요한 것들도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부분 얻은 것이 많아 수고한 손길들에 감사함을 품은 '마음의 정원'이 이어가는 곳이다.



정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나의 정원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정원이라
그 사람들의 추억과 함께 하는 "마음의 정원"입니다.
추억이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나의 정원을
늘 기억해 주겠지요. 또 정원을 만들면서,
고향의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솟아나
기분 좋은 추억의 되새김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원을 즐기고 삽니다.



◀ 원주의 5월장에 나온 토종 생강

몸을 덥히고 기침을 멎게 하는

생강 Ginger, *Zingiber officinale*

어릴 적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지않은 잡화가게에 가서 생강을 사 온 일이 많았었다. 찹쌀을 다리기 전에 파 뿌리와 함께 몇 쪽 넣기 위해서였다. 으레 찹쌀을 지어 오면 생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생강은 김장속이나 시철탕, 추어탕에 넣어 잡냄새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나 또는 생강차나 생강을 썰어 설탕을 묻혀 말려 편강을 만드는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강은 우리의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 중의 하나이다.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생강은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의 아열대 지방이 그 원산지인데 인도에서 중국에 향신료로 조공을 하였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1,300여 년 경인 고려 초 신만석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건너가 봉성현(鳳城縣)이라는 곳에서 생강뿌리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신만석은 봉(鳳)자를 찾아 봉상(鳳翔)으로 내려와 심어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봉상은 지금의 완주군 봉동의 옛적 이름이고 재배에 성공한 생강이 오늘날 봉동 생강의 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일제 말기에는 연간 생산량이 12만 섬에 이르렀고 생강조합이 만들어지는 등 생강 수확기에는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생강 경기로 흥청거렸다고 한다. 그러나 수지맞는 생강의 재배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생강은 전북도 내는 물론 1930년대부터는 충남 서산 등지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토종생강이 줄기째 붙어있는 모양

봉동읍에서 살고 있는 국중참씨는 봉동의 생강이 다른 곳의 생강보다 향취나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연작을 싫어하는 생강의 특성 때문에 심을 땅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재배하는 생강은 토종이고말고요." 라면서 요즘엔 중국 생강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토종은 주로 집에서 먹으려고 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근처의 나뭇, 신성리 할 것 없이 그 전부터 생강농사를 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강 300평 심어서 잘 되어 는 1,180평을 사고도 돈이

남았지요."하면서 5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다.

1990년대 전북과 충남이 전국 생산량의 96%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생강 최대의 적인 생강 선충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재배면적이 줄어만 가고 있고, 더욱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국의 생강 도입을 막을 길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한다.

생강은 '새양'이라고도 하는데 여러해살이 숙근 초본식물이다. 줄기는 땅속 옆으로 자라며 우리가 먹는 부위이다. 생강은 땅속줄기로 번식하는 작물이어서 번종도 많지 않으며 심는 지방에 따라서 전주종, 완주종, 서산종으로 부른다.



생강꽃



개량종 생강은 토종보다 키가크지만 향이 적다.



수확기 전의 토종생강



완주군 봉동읍 이명순아주머니가 대물림한 토종생강



완주군 한 농가의 토종생강 재배 모습



토종생강은 개량종이나 중국종보다 키가 적다.

생강 속에는 매운 맛의 성분인 진게론, 쇼가올, 진게롤이 있는데 뿌리 줄기에 0.04% 정도 들어 있다. 진게론을 먹으면 위점막을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혈압을 높이며 위액을 빨리 나오게 한다. 생강즙은 침 속의 디아스타제의 활성을 높여 우리가 먹는 밥의 소화가 잘 되게 한다. 진게론과 쇼가올은 티푸스, 콜레라균에 강한 살균 작용이 있다.

생강은 집 앞의 텃밭에서 심어먹기도 하며, 생강을 재배 할 밭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고, 바람이 강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밭을 깊이 갈고 제초를 하고 밭을 매주어야 잘 자라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거름을 많이 주는 편이 좋다. 조선시대 문헌인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생강을 3월에 심고 누에똥, 두엄, 재거름, 쇠똥 따위로 덮어준다. 8월에 거두었다가 9~10월에 깊게 움을 파고, 거름 섞어 따뜻한 쪽에 묻었다가 종자를 한다."라고 하였다. 생강의 뿌리는 13도 이하의 저온에 일정 기간 있거나 서리를 맞으면, 어린삭(幼芽)과 덩이줄기(塊莖)가 동사하여 저장 중에 부패하거나 고사한다. 그러므로 종생강(種生薑)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리와 저온을 피해 수확을 해야 하는데, 보통 10~11월 상순이 적기이다. 수확한 생강은 저온에서 보관하는데, 『색경(穢綱)』에는 "질과 같이 깊은 토굴에 묻는다."라고 하였다.

생강차

재료 : 생강 100g, 황설탕 1컵, 물 1컵



1. 생강은 껍질을 모두 벗기고 씻어서 얇게 저민다. 2. 냄비에 황설탕과 물을 넣어 끓여오르면 젓지 말고 그대로 찬 곳에 두어 식혀서 시럽을 만든다. 3. 밀폐 할 수 있는 용기에 생강을 모두 넣고 2.의 차게 식힌 시럽을 부어서 통통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2주 이상 숙한다. 생강의 매콤한 맛이 많이 우리나라 생강시럽을 두 차스푼 정도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생강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기 때문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게 된다. 또 위액의 분비를 늘리고 위장의 활발한 연동운동을 돕는 등 위장 기능을 조정하기 때문에 구역질이 멎는다.



조경가든대학 그린아카데미 6기 개강 현장

글/사진 양자선

4월 첫 주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린아카데미 6기가 이천시 우리꽃 농원에서 개강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가드닝을 배우고자 모인 수강생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개강일에는 정원에서의 기본인 꽃과 나무의 환경과 생리를 이해하는 수업으로 우리꽃의 박공영 대표가 직접 강의하였다. 햇빛과 물, 온도조건을 기본으로 토양과 양분 등 기타 조건들이 과학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식물의 배경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기본이론이지만 놓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정원에서의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데미6기 교재]

오랜 기간 배려왔고 준비했던 전원생활을 시작했지만 남의 손을 빌려 만든 정원에서 진정한 정원을 향유하기 어렵다. 많은 실패가 따르더라도 모종하나 씨앗하나 내손으로 뿌리고 심어본 것이 매해 정원을 감상하는 눈을 다르게 하고 정원에서 즐기는 방식을 달리 만들어 줄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조경가든대학" 과정과 함께하게 되어 조금 더 탄탄해진 강의내용과 실질적인 실습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많은 습득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꽃에서 진행하는 조경가든대학" 하반기 과정은 8월 개강 예정에 있다. 대기 접수는 전화031)712-7009로 신청 가능하다.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가든조아 5월 주말특강



식용화 정원 가꾸기

강좌소개

- 내용 : 텃밭정원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파종과 식재, 거름만들기와 종자채취까지 배우는 종합 강좌(이론)
- 대상 : 정원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텃밭을 가꾸고 싶은 분, 베란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분
- 혜택 : 종자100선 3종 증정(텃밭 정원에서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강사소개

- 이학박사 정미나 정원사
- 전)천리포수목원, 한택식물원 등 수목원 가드너 및 큐레이터
- 전)강동구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강사
- 저서)한국의 정원식물 초본류, 텃밭정원활용법 101가지

과정안내

교육기간: 2015년 5월 9일 (토요일)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12시 00분 (9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가든조아 교육장

수 강 료: 3만원

내 손으로 가꾸는 작은 정원

강좌소개

- 내용 : 인테리어를 살리는 화분디자인 배우기 (베란다정원, 주택정원)
- 대상 : 화원에서 사온 꽃들로만 부족함을 느끼는 분
- 혜택 : 베란다 정원에 둘 수 있는 야생화 화분을 만들어 봅니다.

강사소개

- 풀잎고운날 정재웅 정원가(네이버 파워블로거)
- 현 : 정원 컨설팅 및 시공, 가정원에 강사 / 전: 이천블랙스톤 골프장 조경과장
- kbs 아름다운 정원 출연 / 월간플로라, 월간정원생활 잡지기고

과정안내

교육기간: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교육시간: 오전 10시 ~ 12시 (12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가든조아 교육장

수 강 료: 5만원



가든조아

문의전화 031-712-7009 /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가든인 창간 2주년" 기념 축하



국내 정원문화정책과 산업의 동반파트너 가든인의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바야흐로 봄이고 또 정원의 시대입니다.

움추렸던 어깨가 펴지고 여기저기에서 정원관련 단체결과 행사들이 분주합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구례에선 산수유 꽃축제가 열렸고 3월말에서 4월초에는 광주에서 봄꽃전시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실내전시장에서 황지해작가의 총괄 연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4월이 되자 진해군항제를 시발로 전국에 벚꽃축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호시절에 정원전문잡지로서 창간된 '가든인'이 벌써 2년째 돌을 맞는답니다. 진정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이 정원 잡지와는 창간호 축하부터 첫 돌 축하에 이어 2주년 기념 축하도 쓰고 있으니 참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원관련 법제가 산림청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개정되어 정원관련 입법이 처음 되었습니다.

정원은 4개의 위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①국가정원 ②지방정원 ③민간정원 ④공동체정원으로 나누어져서 조성, 관리, 운영될 것입니다. 이중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도 최근 "순천만정원"이란 이름으로 장소가 명명되었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앞으로 지방정원의 지위를 건너뛰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법은 수목원과 정원을 같이 묶어서 국가(정부)가 진흥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조성현황, 지원 및 교류확대, 정보화 및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담게 되어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 및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 정원 진흥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정원의 경우 일반에게 개방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등록해서 공개하는 경우에 평가에 의해서 국가(산림청)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을 차등해서 받을 수 있으며 정원지원센터설립과 교육과정의 인증 등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 공포가 올 1월 20일이므로 6개월 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리됨에 따라 7월 2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순천만정원은 부칙 제2조에 별도 단서조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엔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경엔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 개정안이 나온 후 6개월 만에 시행하기 때문에 정원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에 다소 시간적 부족함이 있어 우선의 초안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고 추후 재개정의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차츰 안정적인 정원관련법제로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산림청이란 중앙국가기관이 정원관련산업을 총대를 메고 나가기로 우리 조정계와도 합의한 사항이고 또 정원은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주도권의 문제로 보기에 어느 특정 분야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자와 그 분야의 실제적 활동만이 주도권을 쥔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은 정원산업의 법적시행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헤쳐 나가야 할 파도와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이 남아있



습니다. 우선은 정원이 정말 선진국적 산업이고 문화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아름답고 소박하게나마 작은 정원들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는 주거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공동주택으로 대별되는 APT 주거문화와 저층, 저밀도의 단독주택주거로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선진국형 주거문화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의 변화 모색이 절대적이고 시급한 발상전환이 요구됩니다.

필자는 일찍이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 구역을 선별적으로 단독위주의 저층, 저밀도로 중규모, 소규모 단지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토지 이용정책의 변화만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한 모델이 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미 다른 곳에 발표하고 최근 학회지에 등재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가든인"잡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국내 정원문화정책과 산업의 동반성장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역할을 잘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조정분야도 올 초에 처음으로 "조정진흥법"이란 법제가 공포되어 하위법령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정진흥기본계획과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란 두가지 진흥책이 국가가 책임지고 세우게 되는 법안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정원이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꽃 피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원관련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며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에너지를 결집하여 선진대한민국의 정원문화 안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든인의 창간 3주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1.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사)한국조경사회 명예회장 / 한국정원문화협회 회장 /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정 주 현



"가든인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원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요즘 창간 2주년을 맞은 가든인에게 큰 축하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정원과 원예분야의 개척자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온 가든인이 더욱 정원문화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기대를 담뽕 담아 축하 인사를 보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015년 4월

아이디얼가든 대표 / 한국정원디자이너협회회장
임 춘 화

"가든인 창간 2주년" 기념 축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제 정원문화가 선도한다.

헤르만헤세의 '정원일의 즐거움'은 사람이 왜 자연 꽃과 나무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맞다, 정원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다. 정원에 대한 우리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80% 가량이 아파트에 살다보니 빗어진 결과로 이해하고 싶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그나마 최근 정원관련 단체나 교육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법률도 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정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우리나라 정원문화 확산에 기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에 대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게 언론과 홍보다. 정보전달 매체로 우리나라에 가드닝 전문 월간지가 2개나 있다는 건 정원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국민들 생활속에 널리 확산하려는 진취적인 리더십을 가진 기업어들에 있다는 얘기다. 그 중 '월간 가든인(박공영 대표)'은 꽃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품종 소개, 정원관련 자재, 초화류 식재 및 이용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으로써 가드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보매체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이제 가든인잡지는 우리나라의 원예 전문 월간지로써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창간 두 돌을 맞아 각계각층의 독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전문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울러 잡지의 콘텐츠도 가든인만의 고유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라고, 국내 가드닝 전문지들간의 역할분담도 고려함으로써 일반 독자고객들이 보다 폭넓고 깊은 다양한 정보를 고루 습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든인이 우리나라 정원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전문지로서 깊게 뿌리내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간 2주년을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사)정원문화포럼 송정섭 대표



화려함의 진수, 최상의 아름다움

독일붓꽃

독일붓꽃은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한 화려한 붓꽃입니다.

주문을 서둘러주세요

 우리꽃영농조합법인 T. 031.634.7990



축제고민해결!

도시조경/행사/축제에 대한 고민 **CZ**에 연락주세요.
단순히 제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및 축제를 준비하시는 곳에서 사전에 미리 연락주시지요.
행사 시기에 맞추어 품종선별, 디자인, 파종/식재방법, 사후 관리까지 **CZ**가 성공적인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대표전화 031-444-1488
팩 스 031-444-1477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소 핑 몰 www.czmart.co.kr




봄 꽃

클레마티스

나른하던 정원이
가지개를 켜다

절찬리

클레마티스 12종 판매중

 우리꽃영농조합법인 Tel : 031-634-7990
www.uriseed.com



케라스티움 토멘토숨(C. tomentosum)

겨울풀꽃으로 살아

점나도나물 속 (Genus Cerastium)

점나도나물은 우리의 들 역에 흔히 자라는 잡초이다.

일년생 식물 그리고 카펫을 형성하거나 군생을 하는 다년생 식물의 100 종 정도의 속으로 유럽의 온대지역과 극한지역, 그리고 북미에 서식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거의 2년생에 가깝다. 보통 가을에 나고 겨울을 나고 개화하는데 생육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몇 년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기 있는 논두렁 등에서 사는데 생육기간에 걸쳐 꽃을 피우는 반복생식을 하는 식물로 필자는 품종개량의 소재로 이용해 볼직하여 관심을 가지고 수집 중에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털이 있고 심한 틈나모양이거나 길라진 작고 별 모양의 5개 꽃잎을 지닌 꽃이 홀로 피거나 취산꽃차례에 핀다. Cerastium속은 대부분 잡초 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배종인 종은 잘 자라고 매트나 카펫을 형성하고 모든 장소에서 침해종이 되나 암석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단 가장자리의 앞쪽에 기르거나 건조한 벽에 밑으로 향하게 기르거나 교대로 건조하고 빛이 잘 드는 독의 피복식물로 이용하는데 이들은 케라스티움 토멘토숨(C. tomentosum)을 일컫는다. 높이가 20~30cm이고 줄기가 가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전체에 은빛을 띤 흰색의 솜털이 있다. 이탈리아와 유럽 남부가 원산지이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암석기원과 정원에 이용되고 있으나 여름 장마철 이후에 급격히 쇠퇴한다. 때문에 가을에 파종 후 이른봄 은색의 분화용으로 하여 혼성 식재에 이용하면 좋은 화단의 바탕식물이 된다. 내한성은 뛰어난 겨울에도 약간의 보온만 되면 관찰할 수 있다. 우리의 점나도나물은 이른 봄 쑥과 함께 좋은 나물로 이용되었다. 맛은 담백하다.

참고로 점나도나물과 비슷한 서식처에 사는 신귀화식물 유럽점나도나물(C. glomeratum)이 제주도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미 한반도 중남부지방에서 여가저기에서 관찰된다. 마치 토종이고 유 민들레를 대신해서 서양민들레나 붉은씨서양민들레가 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점나도나물이 점나도나물을 대체하면서 분포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파랑의 꽃의 아찔한 아름다움과 붉은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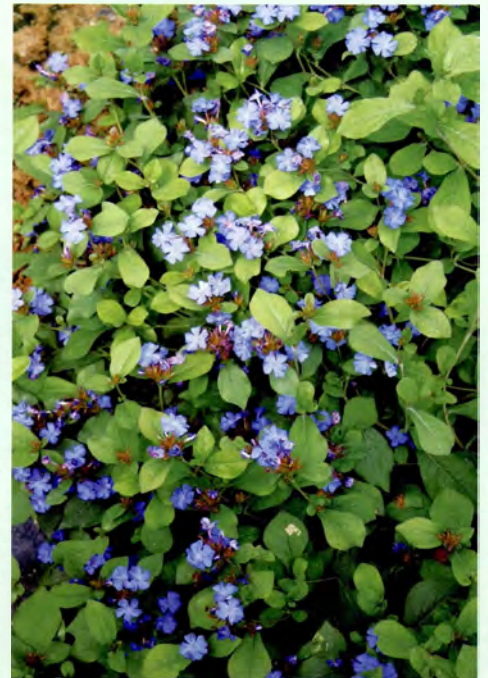
눈하늘꽃 속

(Genus Ceratostigma)

눈하늘꽃은 필자가 2006년 원예종을 유럽으로부터 들여와 한국명으로 명명했다. 세라토스티그마 플럼바기노이드스(C. plumbagioides)를 들여온 것인데 포복형으로 파란꽃이 너무 아름다워 환상이며 단풍도 매우 아름답다.

이들 종류는 주로 낙엽성이고 상록성 이관목과 여러해살이 풀의 8종의 속으로 열대 아프리카, 히말라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건조하고 넓은 장소에서 발견된다. 햇빛이 잘 들고 비람으로부터 보호가 화단이나 따뜻한 벽이 잘 드는 벽에 기른다. 눈하늘꽃은 지피식물로 혹은 암석정원에 적합하다. 서리에 약한 종은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온실에서 기르는 것이 좋다. 내한성은 대체로 약한 편이나 간단한 보온으로 혹은 서울 등지에서는 초본식물과 같이 목본의 줄기는 죽고 매년 새로운 싹을 틔운다.

주로 깎꽂이로 번식하는데 이른봄 지난해의 목본성 줄기를 잘라 삼목하거나 여름이 되면 늦지않이 가능하다. 누워서 자라게 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줄기에 부리가 내리므로 가을이나 여름에 부리가 내린 줄기를 잘라내어 번식한다. 또한 휘문이를 하여 고르고 좋은 부리를 유도 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특별한 병충해는 없고 진드물이나 응애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강하다. 따라서 내한성에만 주의의를 하면 된다.



세라토스티그마 플럼바기노이드스(C. plumbagioides)





목어를 닮았는지 거북이를 닮은 건지 거북머리 속 (*Genus Chelone*)

거북머리는 꽃의 생김새와 잎줄기의 생김새는 낮 설은 식물이다. 당당하고 곧은 느낌의 식물이다.

거북머리는 필자가 2006년 원예종을 수입하여 학국명을 명명한 것으로 꽃의 생김새가 흡사 거북과 같이 생겼고 학명의 *Chelone*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거북이로 변한 것도 참조하였다.

다년생 식물의 6종의 속으로 북미의 산악지대, 초원, 삼림지에 있으며, 생육이 강건하고 계절에 구애를 받지 않는 꽃을 의해 평가된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꽃을 피운다.

사실 거북머리는 우리 나라의 환경에 매우 적합하게 토양을 별로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는 약간의 습기를 가진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지만 생육이 매우 강건하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환경에 알맞다. 양지 혹은 약간 그늘진 곳에 기른다. 밀도가 높은 진흙에서도 자랄 수 있고 습지 정원에서도 자랄 수 있다.

주로 땅속 런너로 번식되는 식물로 대면적 군락 식재에 알맞다. 잎도 광택이 나는 두꺼운 잎을 가져 꽃이 없어도 흥미를 준다.

내한성이 뛰어난 이른 봄 유기물로 토양을 덮어주면 습기를 보존하고 양분을 공급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른 봄에 분주를 한다. 장마철에 녹지삽을 하면 쉽게 뿌리를 내린다. 병충해로는 민달팽이와 달팽이에 의한 피해가 있다.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 육성!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정원과 유럽,
호주, 미국의 정원까지
우리꽃연구소란 개발자의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우리드림 오렌지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

1. 코레우리 텅커벨 골드

특, 건물면 굴러갈까, 둥글둥글 골든볼 노란색이 주는 잎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형태적으로도 볼 형태의 느낌은 더욱 색감을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꽃이 피기전에도 둥글둥글한 모양이 주는 아름다움은 색다른 느낌을 전달해준다. 그리고 5월말이면 금빛 날개같은 잎 속에서 작은 요정이 앙증맞은 얼굴꽃을 내민다. 황금빛 드레스에 화사한 붉은 꽃은 가을까지 앙상블을 이루며 지속된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정원에 심어야 1차로 둥글둥글한 형태를, 2차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으리라.

Special Issue

5월의 빛은 금빛!

5월, 본격적으로 꽃이 기지개를 펴고 세상을 향해 꽃미소를 보내는 달이다. 4월의 아련한 벚꽃향기를 뒤로하고 형형색색의 톨립이 눈앞에 펼쳐지고 꽃잔디의 꽃방석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5월의 눈부신 햇살에 부딪쳐 살아오르는 물오른 금빛조각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금빛으로 화장을 둘러 더할나위 없이 멋드러진 잎을 가진 정원식물들을 모아 이번호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2

2. 인동 해오름

세상의 모든 봄빛을 담은 황금 태양

인동 해오름은 국내에서 개발한 우리품종으로 잎 전체가 황금색으로 잎 자체로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는 덩굴식물이다. 가을에는 붉은 노을을 연상시키는 가을단풍도 아름답다. 잎의 색감이 좋아 벽면녹화용 뿐만 아니라 파죽지 등에 지피식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3. 하코네클로아

정원의 중심에서 금빛을 선보인다.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곡선미가 아름다운 그라스이다. 저기에 더하여 노란줄무늬는 더욱 곡선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에메랄드 그린 등 수직형의 수목하부에 식재해 주거나 포인트로 점식해도 좋은 소재이다. 고급정원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알맞은 황금색 소재이다.

4. 황금개나리

노란 잎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봄이면 항상 우리곁을 찾아주는 친근한 관목이다. 꽃이 아니라 노란 잎으로 봄소식을 전해주는 황금개나리는 잎을 보는 관엽개나리로 기존 일반 개나리의 푸른 잎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품종이다. 황금색의 노란잎은 봄 한철이 아닌 가을까지도 볼 수 있는 최상의 경관용 관목이다.



3



3



4



5. 황금매자

따스한 황금빛 미소

둥글둥글 조밀하게 피어나는 작은 잎들이 모여 빈틈없이 나뭇가지를 수 놓는 관목이다. 매자나무는 최근에 많이 아름다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앞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늘어날 수종이다. 황금매자도 그 중 하나로 푸르름속에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색감이 좋다. 따 녹지, 암석가든, 돌메지용으로 매우 좋은 소재이다.

6. 조팝 골든바

눈부신 화이트와 골드의 만남

봄 눈꽃이 화사하게 메마른 가지를 뒤덮으면 비로소 봄이 시작된다. 따스한 봄햇살에 하얀 눈꽃이 사라지면 뒤를 이어 눈부신 황금색 잎이 가지를 수 놓는다. 여름을 지나 가을 무렵 다시 붉은 단풍색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조팝나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한 관목소재. 생울타리용, 경계용, 포인트용으로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하다.

7. 황금리시마키아

살금살금, 어느새 채워진 빈자리

매우 빠르게 자라는 포복성 식물로 반음지에 빠른 피복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직립성 정원식물 또는 나무아래에 왕아주가 등 색감이 좋은 포복성식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심어도 정원의 색다른 연출이 가능하다.



8. 하늘국화 금방석

정원에 펼쳐진 봄날의 황금빛

분주한 봄정원에 노란색 금방석이 깔린다. 꽃방석이 아닌 황금잎으로 이루어진 동그란 황금색 방석에 치금이라도 달려가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다. 금방석에 보라색 꽃수가 놓이면 더욱 아름다운 느낌을 전달한다. 키가 작고 지피력이 뛰어나 정원의 앞 라인식물로 적용하거나 다른 하늘국화 품종들과 혼성해서 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더욱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라는 것.



9. 대사초 골든팁

펼쳐라! 황금키티

잎 전체가 황금색인 신품종 대사초. 음지에 잘 적응하여 나무아래 식재하여 포복성으로 음지를 밝게 해준다. 소나무아래에서도 잘 자라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한 특성이 있다. 황금색 카펫처럼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다른 대사초 종류들 또는 호스타 종류들과 조화롭게 이용하면 특히 음지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원의 한 자리를 장식할 수 있는 소재이다.

9



10. 황금병꽃

노란 얼굴에 붉은 꽃미소 머금고

병꽃나무는 잎이 무늬종, 적색종, 황금색종 등 다양한 갈라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 있어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잎 전체가 노란색인 황금병꽃은 정원을 밝게 해준다. 더불어 노란잎 바탕에 붉은 꽃이 피어나면 더욱 더 화사한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12

11. 황금조팝

금빛으로 물들여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잎의 조팝. 이른 봄 살짜기 비추던 새순은 잠깐 사이에 벌써 황금색잎으로 변해 가지를 풍성하게 뒤덮고 있다.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인용으로도 좋고 키 큰 식물을 안정감있게 감싸 안아 전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한 지역에 크게 군락을 해서 심으면 더욱 빛이 나는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2.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봄바람에 설레이는 황금여우꼬리

잎의 노란무늬가 일품인 그라스로 포기가 빨리 자라고 뿌리가 강해 생육이 매우 강건하다. 황금 몸매를 한껏 뽐내다가 잠시 숨 한번 돌린후 다시 한번 여우꼬리를 하늘로 뽐내며 자랑한다. 부는 바람에 휘날리는 여우꼬리와 노란 광채는 우리를 어서 오라 부른다.



음지의 카멜레온

옥잠(호스타) *Hosta*

잎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대형종에 이르기까지 또는 잎의 색상이 풍부한 옥잠은 나무아래 음지에서 다양한 품종을 잘 활용한다면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음지용 정원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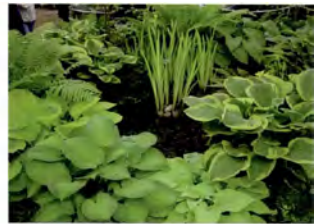


옥잠은 일본, 중국, 한국에서 자생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정원식물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용이하며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옥잠은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다. 노란색부터, 은회색, 블루톤, 크림색 그리고 녹색의 잎 등 품종에 따라 겉모습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잎은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기도 하고 크고 강렬한 색상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드럽게 광택을 바른 것과 같이 윤기와 광택이 절묘하게 잎속에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종류의 다양성은 음지를 연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소재로 자주 이용된다.

옥잠이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은 충분한 간격을 주는 것이며 잎의 크기를 고려하여 띄워서 심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색상이 섞이지 않게 하며 밝은 색을 사용하거나

녹색의 잎을 사용하여 밝은 느낌을 주면 좋다. 푸른색 계통의 잎은 시원한 느낌의 색감을 표현 한다. 반대로 황금색 잎의 옥잠은 열록소를 천천히 생성하며 이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열록소는 따뜻하고 밝은 상태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영국에서는 하트모양의 잎이 양지에서 더 좋은 색상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문적으로 옥잠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분할 재배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서 꽃이 잘 피고 달팽이 피해가 적은지 그리고 밝은 햇빛과 더운 기온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어떤 조합이 더 돋보이고 충돌이 없이 자랄 수 있는지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카멜레온 같은 옥잠은 이파리 식물들을 좋아하는 정원사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대표적인 정원식물이다.



옥잠의 역사

옥잠(*Hosta*)은 Engelbert Kaempfer(1651~1716)가 처음 언급을 하였으며 일본의 작은 섬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그림을 남기기만 했으며 식물 표본을 보낼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에 식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Hosta*라 최초로 명명 된 것은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Nicolaus Thomas Host(1771~1834)에 의해서다(1812). 일본에서는 옥잠을 'giboshi'라고 부르며 이는 둥근모양의 잎이 장식용 모자와 문고리를 닮아서 붙여진듯하고 주로 사원이나 다리의 기둥 주변에 사용하였다.



옥잠 재배

옥잠은 여름에 내리는 비를 좋아하고 이는 더욱 풍성한 잎을 만들며 추운 겨울에는 동면을 한다. 뿌리는 강력한 내한성을 가지며 너무 습한 겨울날씨는 싫어한다. 옥잠은 달팽이의 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이 점을 주의한다. 옥잠을 화분재배시에는 겨울에 화분을 가능한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시키고 난방이 안 되는 실내에 옮겨 놓는다. 잘 만들어진 퇴비를 일년에 2번 정도 뿌려주고 늦가을부터 휴면에 들고 봄에 새싹이 나올 때 물을 잘 정리해주면 좋다.

STEP BY STEP
옥잠 화분에 재배하기

1. 건강한 옥잠 모종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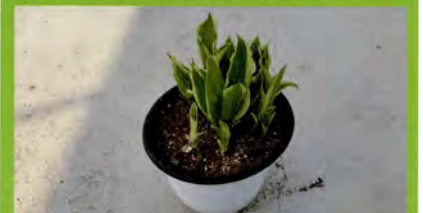
2. 마사, 상토, 퇴비를 일정한 비율(5:4:1)로 섞어 화분바닥에 일정량을 채운다.



3. 준비된 옥잠 2-3축을 화분속에 뿌리를 가지런히 하여 넣는다.



4. 흙이 보일듯할 듯 할 정도로 흙을 화분에 채우고 물을 흠뻑준다.



5. 약 1달정도 지나면 아름다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골드스탠다드



리엠비미



문스플리트



이니스우드



섬



순



알보픽타



위페인트



블루문



오레오마가나타



와이드브림



트와일라이트



화이어엔젤



원터스노우



프랑스윌리엄스



파트리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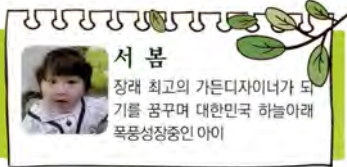


엘레강스



파스트프로스트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안녕하세요, 이번호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롭고 꼭 소개하고 싶은 정원식물을 만나러 가는 서봄입니다. 하나하나 알찬 정보가 됐으면 하는 설레이는 기대를 하면서 첫 나들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최고의 인기, 최고의 선물 가우라 베이비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정원식물은 가우라 베이비입니다. 일단 베이비라는 이름에서 저와 비슷하다는 친숙한 느낌을 받네요. 더구나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란 점에서 첫 번째 손님으로 더 반갑기도 하구요.

일단 가우라는 나비꽃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볼까요. 국내에는 10여년 전에 조경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보다 더 오랫동안 꽃이 피는 식물을 경험해 본적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하늘하늘 흔들리며 나비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딱 어울렸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꽃도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것. 키가 너무커서 종종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키 작은 가우라를 개발했나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가우라 베이비가 바로 그 제품입니다. 키가 작아 쓰러지지 않는 점 뿐만아니라 추지가 많이 발생하여 꽃수가 많아 만개하면 더욱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있는게 아니라 3형제라는걸 꼭 기억하세요.(좋겠다. 나는 혼자인데, 부모님은 언제 동생을 만들어 주실라나~) 레드, 핑크, 골든드리가 있는데요, 키가 작으면서 차례로 진분홍, 연분홍, 하얀색의 꽃을 피웁니다. 특히 골든드리 품종은 노란색 가지를 가지고 있어 하얀색꽃과 황금색의 가지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 잊지마세요.

키가 작아 조경용 뿐만아니라 분화용으로 가능합니다. 꼭, 화단에 심지 않고 큰 화분, 작은 포트에서도 예쁜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선택하세요. 서봄이 적극 추천하는 첫 번째 정원식물입니다.



오늘은 빨간 아기나비들속에서 놀아볼까



반갑다! 분홍 아기나비들



임과 줄기에 노란색이 배어있는 베이비 골든드리

꼭 잊지 마세요! 베이비품종은 몸중보호를 받는 제품으로 반드시 개발자인 '우라꽃연구소'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생산하셔야 합니다.

형형색색 족도리 여왕꽃 풍점초(클레오메)



두 번째 소개할 식물은 풍점초입니다. 바늘꽃과의 일년생 정원식물인데요, 그리고 보니 앞에서 소개해드린 가우라베이비도 바늘꽃과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까운 친척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빠져나와있는 꽃술이 멀리서 볼 때 마치 꿀을 빨고 있는 나비와 같다하여 풍점초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 머리위에 아름다운 족도리를 얹어 놓은 듯 하다하여 족도리꽃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예쁜꽃들은 역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네요. 저는 여왕꽃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꽃이 풍성하고 화려해서 정원용 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키가 크고 빨리 자라며 장기간 개화하는 꽃입니다. 일년생 정원에 뒷줄식물로 반복식재해도 좋고요, 키가 큰 식물과 혼성식재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년생 정원에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더욱 안정맞춤이구요. 또 한가지 품종에 따라 색상이 다양해서 분홍, 빨강, 보라, 하양 등 구미에 맞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아주 작은 소정원에 풍점초로만 보고자 한다면 직파해도 되지만 다른 식물과 어울리게 한다면 면적이 넓은 곳에 풍점초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육묘를 하여 묘종을 식재하는게 유리합니다. 파종하여 3~4주후면 육묘가 완성되어 포트에 옮겨 1달 뒤면 정원에 옮겨 심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가지 팁을 드릴게요. 풍점초꽃이 너무 좋아 큰 면적에 대단위로 조성하고 싶은 분들은 풍점초는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 활착할때까지 관리만 신경 써준다면 육묘된 트레이 상태로 식재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5월에 파종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풍성한 정원을 즐기세요.



일년생 정원에 하얀색 풍점초가 뒷줄식물로 반복되어 식재되어져 있다.



그럼 다음 호에 새로운 정원식물로 다시 만나요.

풍점초 기르기



1. 먼저 어떤 풍점초 품종을 파종할지 선택하세요.



2. 양질의 종자를 구매하여 트레이에 파종합니다.



3. 파종후 약 3-4주후의 자란 모습입니다.



4. 뿌리가 잘 내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5. 이 정도면 포트에 옮겨도 되겠네요.



6. 무력무력 자라고 있는 묘토씨는 앞으로 약 3주후면 정원으로 옮겨 심어도 됩니다.



그대에게 봄을 안겨주는 행복의 청계광장 정원

청계광장에도 봄은 다시 찾아왔다. 분주한 서울의 중심광장에도 늘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화단이 마련되어 있다. 2015년 청계광장의 봄정원은 공공의 정원으로서 혼성식재 디자인을 통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자연스러움은 실제로 철저하게 인위적인 계산이 따라야만 실제 자연에서 주는 그 이상의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소재의 선택과 식재방식의 절묘한 계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I. 3월 23일 AM 9시, 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광장화단은 식재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전날 깔끔하게 면정리를 해놓았고 식물이 도착하기전에 먼저 양분이 되어줄 퇴비를 전면에 골고루 뿌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한다. 다년초로는 적엽휴케라, 상록잔디패랭이, 삼색조팝, 비단너도부추가, 일년초로는 크리스산세멈, 하늘국화, 오스테오스펠럼, 물망초, 아이슬란드양귀비, 가우라베이비(남부지방에서는 월동가능), 데이지, 스톡 등 혼성식재할 일년초와 다년초 약 10여종이 순서를 기다리며 차례차례 하차되어진다. 출근을 위해 마냥 분주하게 걸어가는 시민의 발걸음과 리듬을 같이하며 어느새 오늘 식재되어질 색색의 주인공들도 임시거처를 마련하였다. 한 줄 돌리고 다음순서를 기다린다.



II. 정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 포인트 먼저

아주머니들이 식재하기 전에 먼저 포인트가 되어질 식물들 배치가 선행되어진다. 그 장본인들을 먼저 소개해드린다. 어떤 꽃보다 더 강렬한 적색의 고급미가 넘치는 적엽휴케라, 아직은 꽃대가 올라오지 않아 작지만 언제 그랬다는 듯이 5월이후부터는 아름다운 나비꽃들을 날려보내는 가우라 베이비, 처음 볼 때 빨간 잎을 봄꽃인양 착각을 주는 삼색조팝, 언제 어디서나 매년 보아도 천상의 아름다움을 주는 양귀비. 이 4가지 품종을 먼저 전체 화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를 잡아준다. 휴케라와 양귀비는 식재후 바로 효과를 위한 것이고 가우라베이비, 삼색조팝은 한창 물이 오를 4월말부터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III. 하나하나씩 정원을 채워나간다

이제는 남은 식물들로 하나하나 화단을 채워나갈 차례이다. 각 품목별로 똑같은 수량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식재해 나간다. 일정한 구역에 한 식물로 식재해 나갈때와는 달리 혼성식재는 여러식물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반복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손에 익숙하지 않다. 생각보다 식재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진다. 본격적으로 식재 시작후 1시간정도 지났을까. 이제서야 손이 익은 듯 조금씩조금씩 제 속도를 찾아가는 듯....

혼성식재시 중요한 요소가 있다. 흰색의 적절한 배치이다. 흰색의 느낌은 베이스를 이루면서 전체를 반짝여주면서 안정적인 구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은회색느낌도 마찬가지로인데 대표적으로 백요국은 혼성식재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소재이다.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었을 때 다른 식물들이 더욱 돋보이며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완성된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어 백요국은 사용하지 못했고 대신 하얀색의 크리스산세멈이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었다.



IV. 완성된 행복을 전해주는 봄정원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정원의 윤곽이 대략 드러나기 시작했다. 양귀비, 데이지, 스톡, 비단너도부추, 크리스산세멈, 하늘국화 등 일부 70%이상 개화된 식물이 있는 반면 상록잔디패랭이, 물망초, 하늘국화, 오스테오스펠럼 등 이제 막 개화가 시작되는 품목들이 있어 아마도 이들이 활착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만개되어진 모습은 아마도 2주정도 지나야 될 것이다. 모두가 완전개화된 것을 심는 것보다는 개화되고 있는 식물들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정원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재미거리가 될 수 있다.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2015년 봄 청계광장 정원은 완성되었다.



V. 4월 7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여느때와 똑같이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바쁘다.
그 발걸음 한쪽으로 봄소리가 들린다. 2주만에 찾은 청
계광장 화단은 봄소식을 전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제 하
나둘씩 꽃망울을 터트리는 가우라베이비, 상록잔디패랭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따스한 봄햇살을 받으며 꽃미소를
보내고 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피고 지고 했던 꽃들마
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봄을 수놓고 있다. 오늘의 아름
다움은 내일로 이어지고 다시 5월에는 더욱 아름다운 정
원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장마후 교체되는 그 순간
까지 봄을 전해주는 행복의 정원으로 시민들에게 꽃미소
를 잃지 않을 것이다. 교체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여
름이후에 다시 한번 만날 것을 기약해 본다.



식재 직후



식재 2주후

분화용, 조경용 등 다목적 활용가능한 전천후 구근식물

꽃백합 50선

꽃백합 50종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선보입니다.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Tel : 031-634-7990
www.uriseed.com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까? 정원은 현실입니다 (주)벽화수가 현실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이제 정원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원시공, 설계, 관리, 컨설팅 이제 진정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택정원, 암석정원, 연못정원, 수직정원 등
(주)벽화수는 고급정원 설계, 시공 전문기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택정원



암석정원



생태연못



아리개든



벽화수주식회사

T. 031.726.0610 F. 031.634.7991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나봐야 안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벽화수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크면 야 좋지만 벽면에 매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나봐야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고갈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년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는 않는 것이다.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성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특 성

1.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2.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째에는 일년생 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째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3.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4.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구미에 맞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법면 3호, 4호)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두메애기풀(왼)



두메애기풀(전경)



두메애기풀(접사)



병애리풀(붉은꽃)



병애리풀(붉은꽃과흰꽃)



병애리풀(열매)

이명호의 야생화

풀과 나무의 중간형인 “애기풀”

풀과 나무의 중간 형태를 띤 식물

원지족의 식물들은 모두 키가 작고 외형상은 풀처럼 생겼는데, 실상으로는 나무인 것들이 많다. 아니, 어쩌면 풀과 나무의 중간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종류들 중 대표적인 애기풀과 흰애기풀의 줄기 아랫부분은 딱딱한 나무이지만, 윗부분은 모두 풀처럼 생겨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머진 원지와 두메애기풀, 병애리풀은 모두 틀림 없는 풀이다.

양지식물(陽地植物)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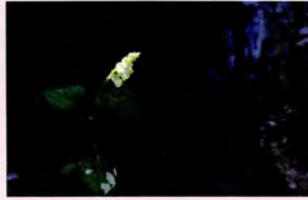
음지식물(陰地植物)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음지식물은 충분히 무성한 삼림의 임상(林床)과 같은 약광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나, 양지식물은 태양의 직사광선 아래와 같은 충분한 광조건에서 잘 생육하고 약광조건에서는 생육이 나빠지거나 또는 불가능하다. 양지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빛의 세기와의 관계는, 음지식물보다 광합성 능력이 최대에 달하는 빛의 세기, 즉 광포화점이 높고, 또 그 빛에서의 광합성 능력은 크며, 보상점은 보다 밝은 곳에 있다. 전형적인 양지식물의 잎은 모두 양엽(陽葉)으로 음엽은 만들지 않는다. 대개의 1년생 식물이나 중요한 농작물은 양지식물에 속한다. 수목의 경우는 양수(陽樹)라고 하며, 소나무·일본잎갈나무·자작나무 등이 이에 속한다.

묘지(墓地)를 좋아하는 식물

양지식물은 대개 묘지에서 잘 자란다. 1년에 한 번씩 잘 깎아주는 오래된 묘지를 좋아한다. 잘 깎아주는 묘지를 찾으면 여러 종류의 양지식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원지와 애기풀 종류들도 이들 중의 한 종류이다. 이른 봄부터 피는 할미꽃과 양지꽃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제비꽃 종류들, 향기 좋은 꿀풀과 조개나물 종류들, 각시붓꽃과 앵초 종류들도 모두 양지바른 묘



병애리풀(접사)



병애리풀(흰꽃)



애기풀(군락)



애기풀(열매)

지를 찾아야 많이 볼 수 있는 꽃들이다. 묘지를 잘 가꾸다가 자손이 게을러서 관리를 못 하면 다른 풀이 우거져서 양지식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어릴 때 봤던 뒷동산의 할미꽃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표현을 사람들은 많이 쓰게 된다. 카메라를 메고 나서서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 주변의 공동묘지를 자주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원지(遠地)의 특징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원지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높이 약 30cm 정도로 자란다. 뿌리는 굵고 깊며 끝에서 몇 개의 원줄기가 무더기로 나오고 거의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고 줄 모양이며 길이 1.5~3cm이고 잎자루가 없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원지라고 하며 거담제·강장제·강정제로 쓴다. 한국의 중부 이북과 중국 북부에 분포한다. 원지의 뿌리는 약으로 쓰는데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이 따뜻하다. 잘 놀라면서 가슴이 떨 때, 가래 섞인 기침을 할 때, 건망증 등에 쓰인다. 진정작용, 최면작용, 감시작용, 가래삭임작용, 용혈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

원지의 꽃과 열매

꽃은 7~8월에 자주빛으로 피고 총상꽃차례에 드문드문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5개이고 뒤쪽과 밑의 것 2개는 줄 모양이며 양쪽 2개는 꽃잎같이 생기고 막질(膜質)얇은 종이처럼 반투명한 것이다. 꽃잎은 윗부분이 벌어지고 밑부분이 붙어 있으며 끝이 술처럼 잘게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果)로서 납작하고 2개로 갈라지며, 종자에는 털이 뽀뽀이 난다.

식물의 특징 관찰

주로 양지쪽의 묘지에서 자라는 애기풀 종류들은 대개 5월에 꽃이 피는데, 꽃받침처럼 생긴 양쪽 2개의 꽃받침잎이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어미닭이 모이를 물어다 줄 때를 기다리며 입을 찌찌 벌리고 있는 병애리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식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를 하려면 전체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한다. 줄기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수피는 얼마나 두꺼운지,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몸에 털은 있는지, 꽃과 열매의 특징은 무엇인지, 다른 식물들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등의 특징을 일일이 관찰하고 비교해 보아야만 한다.

원지족의 식물들

꽃의 색깔은 대개 연한 자주색이지만 흰애기풀은 흰색이고, 병애리풀은 자주색 바탕에 노란 색깔이 등글게 들어 있어서, 갓 태어난 병애리풀들이 어미를 쫓아서 종종걸음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꽃이다. 흰애기풀이나 병애리풀은 귀하면서 예쁘게 생긴 꽃이라서 자생지에서 발견이 되면 금세 없어지는 일이 태반이다. 작은 식물이라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의 고유하고 독특한 생태계의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예쁘다고 뽑아 옮겨 기르느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식물이 가진 생태학적 지위와 자생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한발 물러서야만 되겠다. 식물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영원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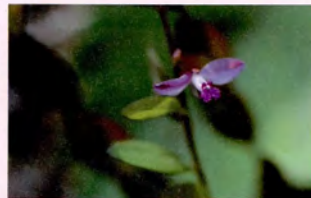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흰애기풀(접사)



흰애기풀(전경)



애기풀(접사)



원지(근접)



원지(열매)



원지(전경)



원지(접사)



흰애기풀(근접)

다육식물은 왜 유행되고 있다.



은행목과 홍옥, 애오니움, 칼랑코에를 혼식하여 장식한 공중걸이용 다육식물



개구리 모양의 도자기 앞에 식재한 Sedum morganianum



각종 다육식물과 나무무늬걸이를 이용하여 장식한 분경 다육식물



윤 평 섭
침묵대학교 명예교수

다육식물하면 어떤 식물이 있는가? 다육식물 종류부터 알아보자 다육식물은 잎살이 두껍고 육질이 많은 식물들을 말하며 다양한 과(科)에서 볼 수 있다. 돌나물과 식물을 비롯하여 국화과, 쥐방울덩굴과 석류과, 대극과, 박주가리과, 백합과 등에서 볼 수 있다. 다육식물들이 유행된 것은 오래전부터 취미재배자들이 취미원예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생활의 시간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취미재배로 수집하여 재배되었다. 그러다가 한참동안 영리재배로 수출산업이 활성화되어 선인장 단지가 고양시에 자리 잡게 되었고 선인장이 뒷전으로 물러나면서 어느 날 보니 어떤 다육식물은 금값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있는 것도 있었다. 몇몇의 취미재배자들이 붐을 일으키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바쁜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어 살게 되면서부터 녹색식물이 요구되는 좋은 식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녹색식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데 이중에서도 관수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비되는 인력 소모가 귀찮다는 조건에서 다육식물은 현대인들에게 좋은 화훼식물이 되었다. 내건성식물로 물을 가끔 주지만 해도 되는 이점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업으로도 각광을 받는 식물이 되기도 하였다. 비싼 품종들은 번식하면 돈이 되니까 소리 없이 부업으로 갖게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5년까지만 해도 다육식물이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육식물이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만 해도 5년전 까지만 해도 그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식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2, 3년 전부터 화원에 다육식물코너와 틸란드시아 코너가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육식물과 틸란드시아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육식물들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인기 높은 관상식물이 되고 있다.



다육식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한 너서리



원형의 바구니에 은행목과 홍옥, 애오니움 등을 식재하여 장식한 공중걸이 다육식물



세돌과 애오니움종류들을 식재하여 장식한 다육식물



은행목과 애오니움, 세돌을 식재하여 장식한 다육식물



화봉산호와 애오니움, 세네시오, 무늬코발로메를 혼식하여 장식한 분경 다육식물



원형의 화분에 까라솔과 영자, 세돌을 식재하고 지면을 자갈을 깔아서 장식한 다육식물



코라솔라와 애오니움, 은행목, 칼랑코에를 식재하여 장식한 다육식물



애오니움과 칼랑코에, 화봉산호, 세네시오, 마다가스카르바위솔, 무늬은행목을 혼식하여 장식한 분경다육식물



화분에 짝 차게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한 다육식물



담양 소재원



보길도 세연정

전통 "별서정원"은 자연물과 스토리텔링이 담겨진 정원문화공간이다.

지난달부터 벚꽃이 만개하고 별과 나비가 피어나는 꽃들 사이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분주하게 날아다니고 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이 되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인근에 있는 산을 오르는 분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연인들은 식물원, 수목원 또는 도시 공원과 정원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2015년 봄의 절정을 기다리는 동안 올하는 가든인 구독자들이 선조들이 남겨놓은 전통정원 답사를 권하는 의미에서 조선 3대 별서정원인 담양 소재원, 보길도 세연정, 영양 서석지를 소개했다. 정원을 소개하는 도구로 '기호학'이라는 렌즈를 사용했는데 다소 구독자들에게 어렵게 여겨졌던 것 같은 느낌이다. '기호학'은 눈으로 보이는 형태와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형태와 디자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전통정원을 살펴 보면서 개별 정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공간 속에 남겨진 문화를 알게 되면 더욱 더 그 곳이 가진 매력에 빠져들 수 있기에 정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

이번 5월호는 그동안 살펴본 별서정원을 정리하고 소개했던 정원 뿐 아니라 봄날에 답사해보면 좋을 별서정원 5곳을 지도(map)에 담아 소개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정원에서의 활용법을 나누고자 한다.



글/사진 김 홍 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공감길라잡이
<http://blog.naver.com/hongdairy>



영양 서석지

조선시대 별서정원 둘러보기

1. 소재 양산보와 담양 소재원

양산보는 입신양명의 큰 뜻을 품고 정계에 나갔지만 자신의 스승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낙향하여 자신만의 이상향을 정원으로 조성하고 은일(隱逸, 세상을 피하여 숨는 것)한 생활을 한다. 양산보는 그와 뜻을 함께하는 선비들과 글을 쓰고 시를 짓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겼고, 하서 김인후는 소재원 경관과 정원에 담긴 의미를 노래한 48개의 시를 지은 것이 지금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다. 광풍각과 제월당, 대봉대라는 이름의 건축물은 간결하고도 소박하고 주변의 다양한 경관을 품으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광풍'과 '제월'은 맑고 깨끗하고, '대봉'은 태평성대만 나타난다는 봉황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양산보는 어지러운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상향을 정원에 담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장치들이다.

2. 고산 윤선도와 보길도 세연정

윤선도는 조선 중기에 호남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정치, 학문, 예술, 천문, 음악 및 풍수 등 다방면에 통달한 인물이었다. 의롭지 못한 일에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 성격으로 당쟁과 정치적으로 인한 문제로 오랫동안 유배생활과 문신생활을 하던 지냈다. 제주도로 가는 길에 보길도를 발견하고 이곳의 경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거처할 공간과 정원을 꾸미는데 그곳이 세연정이다. 정자를 세우고 옆에는 네모난 못을 파는가 하면 흘러가는 자연계류에 네모난 돌을 세워 독을 만들고 다양한 수경관을 연출했다. '세연'은 물에 씻은 듯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함을 담았다는 의미를 담은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석문 정영방과 영양 서석지

조선 중기 석문 정영방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상북도 영양에 마당 전체를 돌과 연꽃을 가득 채우고 주변에 건축물과 나무를 심은 '서석지' 정원을 만들었다.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하얀색 돌을 물에 잠기게도 하고, 물 밖으로 드러나게도 하여 등 다양하게 배치한 뒤 돌 하나, 하나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돌 주변에 연꽃을 심었는데 마치 신선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주는 곳이 '서석지' 정원이다.

별서정원이 알려주는 정원조성 활용법

1. 스토리텔링이 담겨진 네이밍과 공간 디자인 필요

오늘날의 정원디자인에는 정원을 조영하는 자의 분명한 컨셉이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 정원의 이름과 정원 구역 별로 꽃 색깔이나 습성 정도를 조화시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정원에서 문화 활동 및 정원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여지나 호기심을 유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문(人文)'적인 컨셉이 담겨져야 한다. 정원 컨셉츠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담은 디자인이 뒷따라야 하는 것이다. 정원 디자인은 아니지만 도시 근린공간 속에 의미와 스토리텔링을 담은 사례가 서울 강동구 성내 하나공원이다. 바로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강동구 지역에 조성한 근린공원은 그 만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담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서울 성동구 성내 하나공원



공원 내 모습



대전 남간정사 자연형 물길

2015년 봄에 찾아가보면 좋은 전통 별서정원

1. 담양 소재원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2. 강진 다산초당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 함안 무기연당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4. 경주 독락당 : 경상북도 안동읍 독산리
5. 영양 서석지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전통 별서건축 지도



보길도 곡수당 나무홍통 물길



소쇄원 나무홍통 물길



세연정 대나무 숲

2. 물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물은 주변의 경관을 수면에 비추어 담아내기도 하고, 흐르고 떨어지면서 물소리를 내어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청각적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원 주변을 청량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여름에는 별레가 생기고,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썩어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많이들 꺼려하는데 전통정원에서의 지혜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을 이용하는 것이 연못이나 지당(池塘)만이 아니라 대나무 홍통으로 물길을 만들거나, 작은 석조(돌 그릇)에 물을 담아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다.

3. 식재의 특성과 고유의 문화의 접목

조선시대 강희안은 매화는 운치가 있고 품격이 있어 고상하다. 치자 나무는 꽃빛깔이 희며 기쁘고 꽃향기가 맑고 풍부하며 겨울에 잎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노란 빛으로 물드는 네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평했다. 또 모란은 부귀 변화한 꽃이요, 작약은 화려함이 뛰어난데 희고 붉은 것이 서로 높음을 자랑한다고 한다. 이러한 꽃들에 마치 사람처럼 얹혀있는 성품을 의인화한 것을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원 입구에는 대나무를 군식(무리지어 심기)하여 스크리닝(screening) 기능이 하게끔 하여 입구의 청량감을 더해주고, 정원 공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소쇄원 대나무 숲



서석지 사무대에 심어진 매화

맺음말

이제부터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선시대 별서정원이 궁궐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의 화려함과 정형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연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인지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만의 정원에서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사연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 형태와 공간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답사해보면 지금까지 정원을 즐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정원에 관련된 배경이 없이 정원 속에 들어가 즐기게 되면 그저 골목길 산책하는 정도로 머물고 만다. 정원이 문화공간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간 속에 다양한 컨셉츠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하며, 컨셉츠는 다수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담아야 할 것이다. 정원 문화가 꽃피고 있다. 일시적인 열풍으로 피었다 다시 지는 유행이 아니길 바란다. 전통정원이든 현대정원이든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꽃피는 장소로서 디자인과 의미를 키워가는 곳이 되길 바란다.



▲ Kellie Castle Garden ▼ Eden Project



분홍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연 귀여움 일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 따뜻함, 상쾌함, 발랄함, 아이함, 봄, 어린아이의 분홍색 드레스 그리고 분홍빛 튜립 일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귀엽고, 봄의 튜립처럼 상쾌하면서 우아한 분홍색. 분홍색의 비밀은 역시 빨강과 흰색의 만남일 것이다. 강렬하면서도 뜨거운 빨강에 밝고 부드러운 흰색이 섞이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아함이 새롭게 탄생한다. 빨강에 가까운 분홍색에서부터 보라색에 가까운 분홍에 이르기 까지 정말 다양한 그레데이션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원에서는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핑크컬러(Pink Colour)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분홍색은 봄을 연상하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봄’은 모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면서,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받으며 칼러를 만들어 내는 신비로운 계절이기도 하다. 이른 봄 제일 먼저 칼러를 만들어 내는 노란 수선화를 비롯해, 추운 겨울 내내 꽃봉오리를 움크리고 있다가 따뜻한 햇살을 듬뿍 머금고 우아하게 피어나는 핑크빛 동백꽃, 우리나라의 온 산천을 뒤덮은 연분홍 진달래 등 각각의 색을 가지고 봄의 칼러를 선사한다.



Camellia First prize, London flower show



Petunia cvs. Wisley Garden

분홍색은 거의 모든 종류의 꽃에서 볼 수 있는 색이다

우리주변에는 분홍색의 꽃들이 참 많다. 벚꽃, 진달래, 장미, 동백꽃, 스위트피, 튜립, 철쭉 등 그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꽃들이 있다. 그 많은 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색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분홍색일 것이다.

특별한 몇 종류의 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류의 꽃에서 분홍색의 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기에 늘 곁에 두고 싶은 욕망 때문일 것이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분홍색의 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정원으로 초대해 보자.

분홍색은 따뜻한 이미지를 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노란색과 분홍색의 꽃들이 정원의 여기저기에서 움트기 시작한다. 봄이 와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분홍색의 꽃들을 보고 있으면 더욱 따뜻한 느낌이 난다. 강렬한 느낌의 빨강과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이미지의 오렌지 사이에 분홍이 놓이면, 강한 느낌의 두 이미지를 중화시켜주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저절로 느껴진다.

유난히 철쭉이 많이 피는 봄, 그들의 대부분은 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의 따뜻한 이미지를 준다.



Nymans Garden

Pink Harmony 어울림조화

1. 분홍색과 흰색의 어울림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의 안제미스(*Anthemis punctata* subsp. *cupaniana*, 국화과)와 분홍색의 겹장미가 화면 전체를 환하게 밝혀준다. 깨끗함과 귀여운 이미지가 만나면서 청순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듯하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6월의 정원을 화사하게 장식하기에 충분하다. 안제미스(*Anthemis punctata* subsp. *cupaniana*, 국화과)는 키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장미가 심겨진 벽 아래로 심으면, 장미덩굴이 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Anthemis punctata subsp. *cupaniana*, Glenarm Castle walled Garden

2. 분홍색과 녹색의 어울림

담을 타고 올라가는 쥐다래(*Actinidia kolomikta*)의 잎을 처음 본 순간,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보통은 식물의 잎이 녹색이고, 색이 다르다고는 해도 대부분은 단색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쥐다래(*Actinidia kolomikta*)의 잎은 한 장의 잎에 두 가지 색이 함께 공존하면서 마치 꽃이 피어 있는 듯이 보인다. 자연의 색인 녹색이 바탕이 되고, 연하고 진한 분홍의 컬러가 잎을 자유자재로 물들인다. 어떤 색에도 잘 어울리는 녹색과 분홍색의 만남은 서로를 더욱 잘 드러나게 하면서도, 서로를 끌어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



Actinidia kolomikta, Wisley Garden

3. 분홍색과 파랑의 어울림

분홍색과 파랑은 색상환에서 보면, 거의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분홍색 꽃의 에키나세아(*Echinacea purpurea*)는 꽃의 지름이 10cm에 가깝기 때문에 웅장한 느낌이 든다. 파란색의 공갈은 꽃을 피우는 철근대(*Echinops* sp.) 역시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고 색이 진한 편이다. 둘 다 국화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생김새는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많이 비슷하다. 서로 보색의 효과를 잘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식물을 심는 양의 비율을 반반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Harlow Carr

4. 분홍색과 연보라의 어울림

넝쿨장미와 클레마티스의 궁합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다. 어떤 칼라의 장미와 클레마티스가 오던지 간에 이들은 잘 어울린다. 분홍색과 보라색은 가까운 거리에서, 비슷한 색상으로 부드럽게 녹아난다. 약간 진한 분홍색의 넝쿨장미가 배경이 되고 연보라색의 클레마티스가 앞에 오면서, 색의 그라데이션을 연출하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Actinidia kolomikta, Wisley Garden

5. 분홍색과 노랑의 어울림

화단전체의 이미지만 보았을 때는 약간 눈이 피로하고 산만한 느낌이 든다. 분홍과 노랑의 조합을 정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예에 들어 갈 것이다. 노랑은 밝고 화사한 이미지의 노랑을, 분홍은 귀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만나면서 서로의 개성이 뭉개져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의 노랑.....는 색이 너무 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튼튼한 분홍색 꽃에 흰색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는 점이다. 이 흰색이 다행스럽게 두 가지 색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Front of Palm House, Kew Garden

Harmony In Pink Garden 식물의 조화



배초향 '키에가비': *Agastache 'Kiegabi'* (Wisley Garden)



하이신스 '진 보스': *Hyacinthus orientalis 'Jan Bos'* (Wisley Garden)



스페키오스 콜치쿰: *Colchicum speciosum* (Wisley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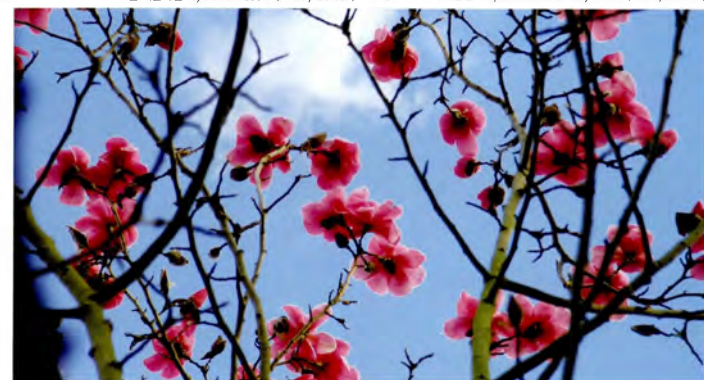
코뮌 사물라벤: *Cyclamen coum* (Wisley Garden) 숙근양귀비 '파티스 플럼': *Papaver orientale 'Party's Plum'* (Wisley Garden)



알스트로메리아 '스트립드 버드': *Alstroemeria 'Striped Bird'* (Wisley Garden)



카르빈스키아누스 명초: *Erigeron karvinskianus* (Wisley Garden)



스프링게리 목련 '코프랜드 코트': *Magnolia sprengeri 'Copeland Court'* (Wisley Garden)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독일

휴양 정원문화도시 바덴바덴(Baden-Baden)

바덴바덴은 독일의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슈바르츠발트 산지 북서쪽 기슭에 있는 온천도시로 2013년 기준 5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바덴바덴은 3세기 경 로마의 온천 도시로 시작해 19세기에 유럽 귀족들의 휴양지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국제적인 컨벤션(convention)이 개최되고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유럽을 대표하는 고급 휴양 문화도시로 도약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킨 결과이다.



온천수를 맛보는 트링크할레(Trinkhalle)와 여러 공공 건물과 호텔, 쇼펍센터, 그리고 유명한 온천장 뿐만 아니라 바덴바덴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과 정원을 조성하여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리히텐탈러 공원(Lichtentaler Allee)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오스 강변의 녹음과 물소리를 즐길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19세기에 이곳에서 살았던 작곡가 브람스도 이 오스 강변의 거리를 산책하며 물소리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다. 정원에는 책을 읽거나 일광욕을 하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휴식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리히텐탈러 공원 길과 연결되는 괴너 정원(Gönnernanlage)에도 장미정원이 있다. 방문자들은 장미의 색과 향기에 시각과 후각적 만족감을 느낀다.



바덴바덴은 이러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경로를 제공하면서 방문자들을 사로잡는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휴양 문화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온천이 발달하면서 카지노, 무도장 등이 함께 발달했고, 수준높은 레스토랑과 카페들도 들어섰다. 류머티즘, 재활 의학 등 여러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시설과 요양 시설이 많아져 치료를 위한 방문자도 적지 않다.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찾아 쉬면서 영감을 받는 곳이기도 했다. 1981년에는 IOC 총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는 바덴바덴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클래식 음악 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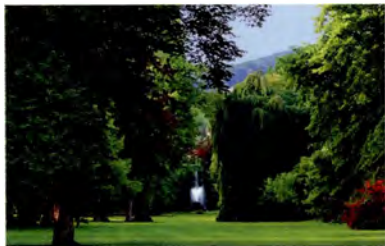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채 바덴바덴을 방문해 둘러보지 못한 곳이 많았지만 바덴바덴에는 아래와 같은 공원과 정원이 있으며 도시는 그야말로 꽃으로 채워진 꽃밭이었다. 휴양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중 꽃은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장미협회 정원 (Rose Society Garden)
프레메르스버그(Fremersberg) 산 허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장미정원은 국제 장미협회에서 우수정원상을 수여할 정도로 뛰어난 천국 같은 장미들의 정원이다. 바덴바덴은 장미정원으로 유명하다.

괴너 정원(Gönnernanlage)

괴너 정원(Gönnernanlage)은 기하학적 문양으로 만든 작은 정원으로 궁전의 정원 같은 느낌을 준다. 괴너정원은 20세기 초에 바덴바덴에 살면서 미국과 독일을 오가며 커피사업을 했던 헤르만 질켄(Hermann Sielchen)이 부인을 위해 만든 정원으로 그 당시 바덴바덴 시장의 이름을 따 정원 이름을 만들었다. 이 정원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꽃피는 400가지 종류 이상의 수많은 장미들의 향을 맡을 수 있는 장미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움을 더 하기 위해 많은 조형물들이 같이 배치되어 있다.



리히텐탈러 알레 공원 (Lichtentaler Allee)

세계에서 가장 긴 가로수 길을 자랑하는 공원으로 조깅, 산책, 자전거타기 등을 하기 좋은 공원이며 공원에는 박물관과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플로렌타이너버그 공원(Florentinerberg)

바덴바덴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플로렌타인 언덕(Florentine Hill)에 있는 시골 전원풍의 공원으로 오렌지와 레몬이 가득 식재되어 있다.

미카엘스버그 공원(Michaelsberg)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는 소박한 공원이다. 찾아 올라가는 길이 아름다운 공원이다.



파라다이스(Paradies)

1920년대부터 아름다운 생활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한 공원과 주거지의 결합형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공간이다.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

II. 질감(Texture)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식재로 만들어진 문주, 잘 다듬어진 주목의 단단함, 초화의 부드러운음이 대비가 되어 서로를 돋보인다. RHS정원문화연구소(2012, 영국)]

지난달부터 소개하는 연재 코너 '무엇이 정원을 재미있게 만들까?'를 통해 매달 정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하나씩 소개하려 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정원의 질감(Texture)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감은 천이나 물건 표면의 재질차이에서 받는 느낌을 이야기 한다. 질감을 느껴보면 대부분 접촉하여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거칠다, 부드럽다 등을 판단한다. 물론 정원에서도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식물의 잎, 줄기에서의 매끈함, 거칠, 부드러움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디자인에서 '질감'을 고려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 식물이 가진 거친 잎과 부드러운 잎의 조화? 직접 만져보고 느껴지는 질감을 조화롭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한번에 그 정원의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촉각이 아니라 시각이다. 그래서 정원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감이 아닌 눈으로 보는 질감, 즉 비주얼 텍스처(Visual Texture)이다. 이 비주얼 텍스처를 결정짓는 요소는 나무, 관목, 초화류의 크기, 모양, 형태뿐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정원요소인 정원 장식품, 퍼고라, 벤치 및 바닥 포장재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Hard and Soft Materials

딱딱한 재료와 부드러운 재료) 질감 차이의 조화

정원디자인에 사용하는 재료는 Hard materials, Soft materials 라고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Hard materials이란 딱딱한 소재를 이용한 요소로 사람이 가공하고 만든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원 시설물인 바닥 포장재, 피고라, 벤치, 정원 오벨리스크, 정원 장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석재, 금속, 나무 등으로 만들어져 정제되어있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금속은 차가운 단단함, 석재는 따뜻한 단단함, 나무는 금속, 석재보다는 무르지만 식물보다는 단단한 느낌을 준다.



[Hard materials_돌 조각품, Kew Garden, (2012, 영국)]

정원에서 Soft materials이란 부드러운 소재, 즉 식물을 얘기한다. 잔디, 흔들거리는 그라스, 초화, 관목, 나무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위에 설명한 Hard materials와 Soft materials의 다양한 조화는 각기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각각의 질감을 대비시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판석 포장 옆으로 잔디를 식재하면 거칠고 단단한 판석과 부드러운 질감의 잔디의 느낌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서로를 매력적인 요소로 만들어준다.



[단단하고 거친 판석과 부드러운 질감의 잔디, 그 대비가 돋보인다. Kew Garden, (2012, 영국)]



[Hard materials_금속의 조각품, RHS첼시물라워쇼 (2013, 영국)]



[Hard materials_목재 피고라, Hyde Hall, (2012, 영국)]

같은 질감의 석재 조각품을 이용하더라도 Soft materials, 즉 식재 분위기에 따라 그 정원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잘 정돈된 상록수 생울타리(Soft materials)와 석재 조각품(Hard materials)의 조화는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정돈된, 깔끔한 느낌을 준다. 같은 소재인 석재 조각품과 그라스(Soft materials)의 조화는 석재의 단단함을 그라스의 부드러움으로 융화시키는 느낌이 든다. 같은 소재의 조각품을 사용해도 Soft materials의 분위기에 따라 전체적인 정원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상록 생울타리(Soft)와 석재 조각품(Hard)의 조화(좌)와 그라스(Soft)와 석재 조각품(Hard)의 조화(우)가 전혀 다른 정원 분위기를 만든다. (좌 Sissinghurst, 2013, 영국/우 Hyde Hall, 2013, 영국)]



Soft and Soft Materials (부드러운 재료들, 식물) 질감 차이의 조화

Hard materials를 제외되고 Soft materials 즉 식물자체의 질감 차이를 이용한 식재디자인이 정원 디자인에 이용되는데 이는 식물 잎 모양 또는 형태(form), 크기 등을 고려하게 된다. 식물의 질감은 크게 Coarse texture(거칠고 큰 질감), Medium texture (중간 질감), Fine texture (가늘고 고운 질감)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잎이 크고, 튼튼한 가지를 가진 식물이 거친 질감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이언트 루밥으로 불리는 Gunnera manicata, 베르게니아, 꽃개오동 나무 등이 있다. Medium texture(중간 질감)의 식물은 거친 질감과 고운 질감 식물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상록 관목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잎이 큰 다년생 초화도 여기에 해당된다. 휴크라 (Heucheras), 제라늄 (Geraniums), 티너스 백당(Viburnum tinu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Fine texture (가늘고 고운 질감)은 가장 작은 잎을 가진 식물로 헤베(Hebe rakaiensis), 주목, 회양목, 그라스류(예: Stipa tenuissima) 등이 있다. 면적이 좁은 정원에서는 이 fine texture의 식물을 많이 사용하면 Coarse texture 식물을 사용할 때보다 정원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질감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식재디자인을 한다면 녹색의 잎 만을 가지고도 흥미로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루피너스(앞)와 매발톱(뒤)의 색 톤은 비슷하다. 하지만 식물의 꽃과 잎의 질감차이가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낸다. Hyde Hall, (2013, 영국)]



[앞쪽의 호스타와 뒤의 하늘하늘한 꽃의 질감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호스타는 Coarse 또는 Medium texture, 뒤의 꽃들은 fine texture라 할 수 있다. Hyde Hall, (2013, 영국)]



[앞쪽의 호스타와 뒤에 고사리류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잎이 호스타는 넓고 큰 잎이, 고사리는 가늘고 하늘하늘한 잎을 가졌다. 이 둘의 질감 차이가 대비를 이룬 정점이다. Hyde Hall, (2013, 영국)]

정원의 색깔(Color)을 찾아 나선 여행



정원 색깔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한다. 나보다 색깔에 대하여 공부하시거나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2011년도 카메라를 메고 봄에 색감주제로 이태리 북부, 볼란서, 그 당시 사진 파일을 정리하여 색깔의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이태리 북부 피렌체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카메라 렌즈를 소품가게 쇼윈도에 아주 가까이 들어대기 시작했다.

평소 무심히 가게를 볼 때와 완전 다른 양상이 렌즈에 나타나면서 흥미를 가지면서 유럽여행(이태리, 파리) 내내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다. 쇼윈도를 통하여 작은 상점들이 각각이 저마다 갈라 컨셉을 잡고 쇼윈도에 상품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작은 상점 주인마저도 artist 능력을 가진 예술 천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글/사진 정수진대표

정수조경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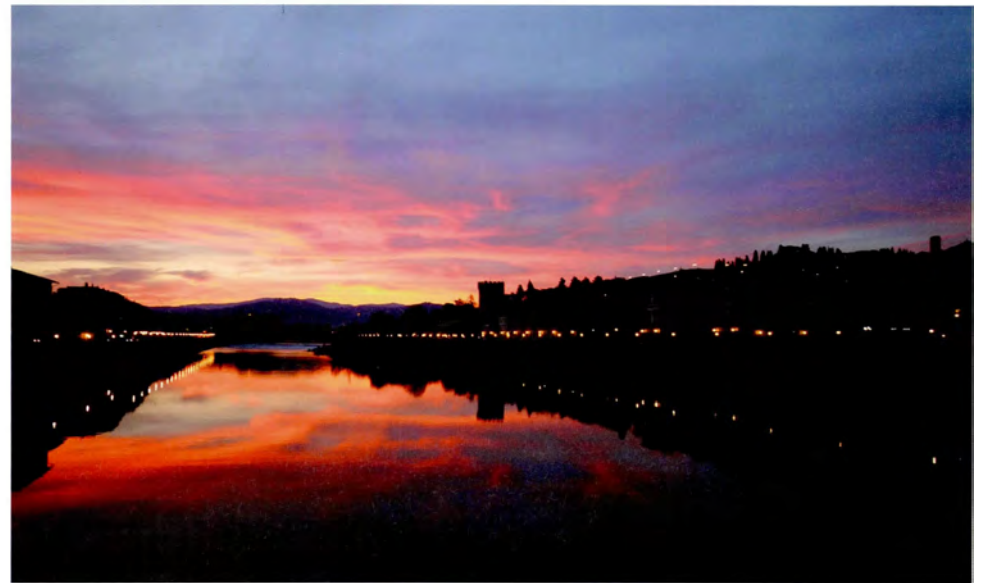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유아 옷 가게, 유리컵가게, 여성 혹은 남성 옷 가게, 책방, 장남감가게, 생선가게 할 것 없이 저마다 약속을 한 듯이 색감 자랑을 하고 있었다. 복잡한 색으로 단장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색깔 테마를 정해놓고 물건들을 배치하여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한가지 색 패턴이 장사에 도움되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고객의 수준에 맞춰 놓은 것임은 틀림 없고 한 가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가게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어 장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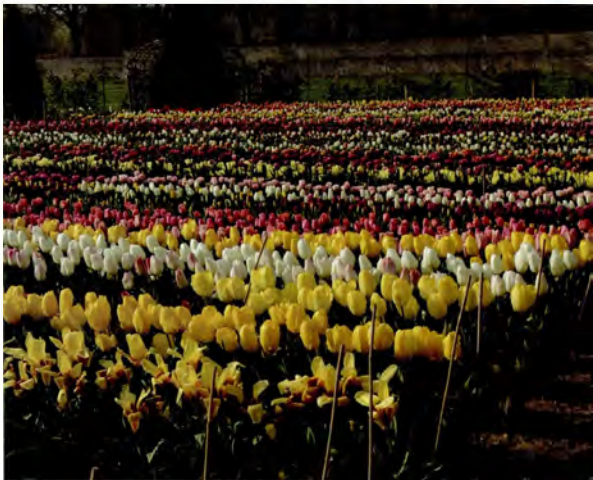


르네상스를 주도한 도시 피렌체는 그곳뿐 아니라 그곳에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피렌체 중심 반경 약 150 km 에 다양한 예술가치가 있는 곳들이 있다. 내가 수 많은 성당들을 다녀 보았지만 피렌체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Siena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의 성당내부의 찬란한 색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마침 어느 오후 늦은 석양에 피렌체에 있는 아르노강을 걷다가 내가 포착한 가장 아름다운 석양 사진을 찍어서 공유 하고 싶다. 예술의 극치인 도시인지 석양의 아름다움도 그와 걸 맞는 장관으로 선사 하고 있었다.



정원도 결국 색감의 조화가 아닌가? 한번에 벚꽃같이 흰색으로 아니면 수양버들같이 분홍색으로 물들여서 환희의 세계로 초대해준다. 유럽에서 뉴욕으로 건너가 브루클린 정원에서 마침 수양버들과 각 종류의 목련을 각각 다른 장소에 모아 놓은 나무들이 만개하여 있었다. 너무 운이 좋아 그 어려운 개화 시기를 맞이하여 카메라를 연속 찍은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엇이든 군집해서 찬란한 한 때 본 색깔이 잊혀 지지 않는 모양이다.

불란서는 오래 전 매년 업무 차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가끔 휴가를 내어서 각지방 마을을 다녔다. 같은 한국에 있는 팬지 꽃이라도 색깔 조화에 너을 잃기도 자주했다. 꽃 색깔 배합 식재는 Garden Designer들이 배치 지도 그린대로 식재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최근 공부한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새로이 배출되는 정원 관련 분들도 공공 정원, 혹은 개인 소장 정원 꾸미는데 한국의 독창적인 색깔의 연구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재 조명하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꽃묘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프러그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구근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조경용 수목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정원으로의 여행 3



(경계를 만들기 위해 만든 울타리지만 나무 사이사이로 밖의 공간이 보이게 만들었다)

정원 소품들

정원을 꾸밀 때 소품에 따라 정원의 느낌이 달라진다. 장식품 하나를 고를 때에도 크기 질감 등을 고려하는데 소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정원은 단순히 울타리를 두르고 식물만 심는 공간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다. 공간을 나누고 디자인적 요소들을 생각하여 표현하고 감상하는 하나의 예술적인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여 나만의 공간에서 그것을 즐기기를 위한 일 것이다.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관점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정원이 바로 좋은 정원일 것이다. 따라서 정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본인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즐기는 주인공에게 맞는 정원을 디자인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취향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원의뢰가 이루어 질 때, 정원 혹은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원의 디자인을 생각한다거나 자신이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는지 구체적으로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경우가 많다. 그저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 지길 바랄 뿐이다. 이때 정원의 스타일 또는 정원에 쓰이는 소품들의 소재에 대한 선택이 그 정원의 컨셉을 잡거나 큰 틀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정원 소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화분 (Plant containers)

식물이 어디에 심겨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아마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로 된 용기나 땅에 심겨있을 때가 아닐까 싶다. 실내에서 화려한 화분에 꽃을 장식해 보면 꽃보다도 화분에 눈에 띄게 때가 많다. 정원에서는 식물이 주인공이다. 식물을 아름답고 눈에 띄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화분을 선택할 때에도 식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흙을 재료로 하는 테라코타 화분이나 숨을 쉴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도자기 화분도 좋다.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보면 꽃들이 어떤 곳에서 피어나는지 관찰 할 수가 있는데 돌 틈이나 울창한 나무 숲의 뿌리 사이사이에서도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돌, 나무, 흙 등의 자연에서 오는 재료를 이용한 화분은 식물을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



(Harrow Carr - 왕립원예학회 RHS에서 운영하는 4개의 정원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정원 스타일을 전시하여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간에도 정원을 만들고 싶어지게 만든다.)



(돌로 만든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어 고산식대 식물을 심은 은실 주변을 장식 해 두었다.)

2. 장식물 (Ornaments)

정원의 장식물이라 한다면 식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 토피어리, 연못을 장식하는 화려하게 조각된 분수, 동상,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진 덩굴 성 식물 지지대 등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말한다. 장식물들은 정원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키친 가든의 경우 토기화분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화단 혹은 덩굴식물의 지지대는 텃밭 식물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단순할 수 있는 식재지를 재미있게 만들어 준다. 유럽식의 정원의 경우에는 식물을 깎고 다듬어 만든 토피어리나 화려한 분수나 조각상들이 그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며 이러한 장식물들에 의해 어떤 나라의 스타일인지 디자이너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유럽의 정원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각상들의 모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나 유명한 시인이거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부엌이 동상도 많이 쓰이는 장식품 중 하나이다.



연못가에 많이 있는 소년의 동상.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원이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듣게 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공간이 아닌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이 된다



담을 만들었지만 담에 올라가 있는 넝쿨 성 식물들 때문에 또 하나의 자연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울타리 (Boundary)

정원의 울타리는 경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 장식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사유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돌담을 높게 쌓거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시나무와 같이 접근하기 힘든 식물들을 심어 울타리를 만들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 학교나 공공기관의 경우 경계가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울타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보다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으로써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함이다. 정원 역사에서도 왕이나 귀족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급간의 단절의 의미를 가졌던 담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없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 집 정원은 어떻게? 담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간단한 스타일의 울타리부터 식물로 경계를 만드는 방법, 낮은 높이의 경계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 스타일의 울타리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4. 의자와 테이블 (Seats)

정원을 즐기기 위해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앉아서 식물도 감상하고 가족들과 파티도 즐기기 위해서는 앉는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정원 가구들을 선택해야 할까? 전체적인 나의 정원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형의 식재지와 잔디밭 등 동선도 곡선으로 되어있는 공간이라면 둥근 테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통일성이 있게 디자인 한다고 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사용된 소품의 재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돌을 많이 사용한 곳인지 나무를 이용해 화분을 만들거나 화단경계를 둔 곳인지 등의 사항들에 따라 의자와 테이블의 재질도 통일 시켜 주는 것이 좋다.



재활용 가든 - 버려지는 플라스틱 시계로 만드는 액자가든



우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
디자인협회) 회원회장

버려지는 시계의 분침과 초침을 제거하면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에 이끼를 채워 넣고 식물을 기르면 벽 장식과 함께 액자가든이 탄생된다.



시계를 분해해서 부속들을 다 떼어낸다.



분침과 초침이 있던 공간에 이끼를 채워 넣는다.



치킨망을 이끼를 넣은 공간보다 조금 크게 자른다.



이끼 위에 망을 덮고 고정시킨다.



시계의 겉 커버를 씌우고 고정시킨다.



풍란을 포트에서 분리시키고, 감겨진 수태를 완전히 털어내고 상한 뿌리를 정리한다.



치킨망을 2cm정도 자른다.



자른 말 사이에 풍란을 넣고 고정시킨다.



이끼가 젖도록 충분히 물을 부어 적시준다.

Material



알루미늄치킨망

시계

풍란

산이끼

수직 정원의 왕자 타잔

숲에서 태어난 타잔의 선물,
이제 여러분께 바칩니다.



수직정원 이제 너무 간편합니다. 타잔이 알려줍니다.